

1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95.69	↑ 코스닥	797.39
	(+17.78)		(+15.41)
↑ 금리 (미국 9년)	3.415	↓ 환율 (원·달러)	1302.20
	(+0.015)		(-10.80)

[경제종합]
비트코인
일주일 새 35% 폭등
금융시장 피난처?
04



제3국 원자재 수입 65% 제한 K-배터리 中 의존도 축소 시급

EU 핵심원자재법 초안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동맹국 공급망 다변화 추진
투자 활성화 금융지원 검토
재활용 정보 의무공개 주목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은 '예상된 정도'였다. '유럽판 IRA'라 불렸던 EU CRMA는 미국의 IRA와 다르게 한국을 비롯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는 차별 조항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과 관련한 역량 개발에 힘을 전방이다. <관련기사 2면>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EU CRMA 초안의 핵심은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RMA를 통해 EU는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제련과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韓美 공군 연합훈련 실시

한미 연합연습(자유의 방패) 7일차인 19일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다시 한반도를 찾아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자산을 투입해 대북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했다.

/뉴시스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한 셈"이라고 말했다.

◆ 웃을 수만은 없는 K-배터리
현재 EU가 규정한 전략적 원자재는 현재 총 16종으로 ▲니켈 ▲리튬 ▲희토류 ▲천연흑연 ▲망간 ▲구리 ▲마그네슘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 지점에서 국내 배터리사도 역시 '중국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CRMA 설명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중국에서 100% 정제되고 EU 마그네슘 공급의 97%가 중국에서 조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적 원자재로 꼽히는 코발트와 천연흑연 등의 중국산 비중도 각각 72.8%, 94%에 이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사실

이라며 "유럽연합(EU)은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해 공급망 다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됐다.

다행스럽게도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 IRA법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EU 자체에서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고 금융 지원을 하기로 한 점은 희소식이다.

社 告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2일(수)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잇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은퇴 준비 재테크와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거시경제 전망과 '증시업탐정', '엠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주식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호지영 세무사(우리은행)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김동업 미래에셋상무의 은퇴 준비와 재테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행사명 : 2023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일 시 : 3월 22일(수) 14:00~17:1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방 식 : 선착순 현장참가 신청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EU는 주요 7개국(G7) 중심으로 클럽을 구성한 뒤 아프리카, 아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국과 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U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배터리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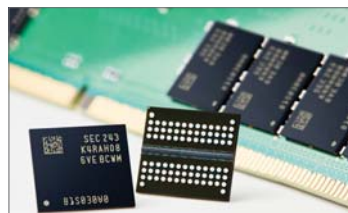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반도체 1분기 실적 빨간불... 삼성·SK '적자' 유력

메모리값 하락, 수요 제자리
삼성 2조, SK 4조 '적자' 예상
2분기 재고 감소 등 반등 기대

반도체 업계가 1분기 대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재고가 정상화하고 있어 '바닥'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19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DS부문이 1분기 2조원을 넘는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그나마 파운드리 사업이 역대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개발한 12나노급 D램

을 내면서 적자를 면했지만, 올 들어서는 메모리 가격이 더 떨어지고 파운드리마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SK하이닉스는 적자폭이 전분기보다 2배가 넘는 영업 적자

가 유력시된다.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가 1조8000억원대, 1분기에는 4조원 안팎이 예상된다.

메모리 가격도 여전히 하락세다. DDR4 8Gb 기준 D램 가격은 지난 1월 1.8달러대로 추락, 2월에는 보합세를 지켰다가 3월 들어 더 떨어져 1.7달러대로 깨지기 직전이다. 생산 원가보다 낮아파는 만큼 손해라는 추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올 초만해도 하반기 반등이 확실시됐

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없는데다가, 챗GPT 등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성능 서버수요 확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한 상태다. 생산 비용을 줄이고 수율을 높이며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하이닉스 등 업계가 감산을 본격화한 가운데, 삼성전자도 공급 빚그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치킨계

임을 제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공급이 축소되면서 2분기부터는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비용 감축 노력으로 1분기 적자 폭도 예상보다는 적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시장 상황도 긍정적으로 전환됐다. 업계에서는 세트 부문 반도체 재고가 최근 들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도 신규 플래그십 출시가 시작되면서 수요를 크게 촉발할 전망이다. 인텔 13세대 프로세서 보급이 본격화하면서 DDR5 D램 비중도 늘어나는 분

위기다.

불황이 끝나면 메모리 반도체 판도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감산에 나서지 않은 덕분.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점유율은 낸드 33.8%, D램 45.1%로 전분기 대비 각각 2.4% 포인트, 4.4% 포인트 상승했다. 메모리 침체를 끝내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이 어렵고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하반기 반등에는 대부분 뜻을 모으고 있어 열심히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당 "한일정상회담 폄해, 이재명 방탄... 무책임한 선동" /사진 뉴시스
▲ 박지원, 수사의뢰 보도에 "원훈석에서 돈 받았겠다"

▲ 민주, '주69시간제'에 "현실 모르고 국민 목소리 배제한 정책"
▲ 이재명 "이주노동자 처우 보장 시급... '코리아안락' 없어야"



▲ 민주, 내일 한일 정상회담 평가 긴급 좌담회
▲ 조국 "강제징용 정부안, 헌법 위반"... 조민과 북콘서트 /사진 뉴시스

오세훈 “성수 삼표부지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 만들 것”

유럽출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랜드 캐널독 콘셉트 韓에 접목
최첨단 하이테크기업 공간 조성”

신산업 성장거점 도시·자연 등
어우러진 수변복합도시 목표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그랜드 캐널독 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삼표부지와 성수 일대를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더블린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콘셉트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가 성수전라정비구역과 연계해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를 전 세계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



16일(현지시간) 곡선 형태의 유리벽 외관이 돋보이는 ‘도크랜드 컨벤션 센터’를 찾은 오세훈 시장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려들어 일과 주거,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블린 도크랜드(항만 지역)에 위치한 그랜드 캐널독 지구는 업무·주거·상업·문화가 복합된 글로벌 IT산업 중심

의 업무단지다. 수변을 따라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문화시설 등이 자리해 세계적인 수변 문화복합도시로 각광받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더블린시의 수변도시

평소화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극장의 커튼을 형상화한 외관을 지닌 무대 콘셉트로 건축된 ‘도크랜드 대운하 극장’과 곡선 형태의 유리벽 외관이 돋보이는 ‘도크랜드 컨벤션 센터’를 찾았다.

오 시장은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계획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담아 성수 일대를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로 만들어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2009년 현대차가 지으려고 했던 110층 규모의 신사옥인 GBC 건립을 통해 삼표부지 일대 한강변 랜드마크 조성이 추진됐으나 한강변 높이 규제 등으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성수 일대를 신산업 성장 거점이자 도시·자연·첨단산업·문화가 어우러진 수변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삼표 부지는 첨단 기업이 집적된 업무 지구인 ‘글로벌 퓨처 콤플렉스(GFC)’로 만들어 기술·광고·미디어·정보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 이곳에는

첨단기술을 도입한 신개념 스마트 오피스이자 국제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축물(LEED 플래티넘)이 들어선다. 서울숲 등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층부는 선콘(Sunken·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이나 덮개공원으로 연결한다.

서울숲 일대에는 한강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수변 랜드마크 타워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서울숲 안의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전시, 문화체험, 콘퍼런스 등이 가능한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그랜드 캐널독 지구 방문에 앞서 더블린 맨션하우스에서 캐롤라인 콘로이 더블린 시장과 면담하고, 양 도시 간 교류강화를 위한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는 기후 위기 대응, 교통, 문화, 관광 등 행정 전반으로 교류 분야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 2조 들여 송도에 제5공장 건립

송도 11공구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생산능력 78만 l … 2025년 가동 목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5공장’ 증설을 통해 압도적인 글로벌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 올라선다. 총 78만 리터 생산능력을 갖추고 위탁개발생산(CDMO)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제5공장 증설을 결의, 제2바이오캠퍼스 시대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제5공장은 인천 송도 11공구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에 건설된다. 총 투자비는 1조 9800억원, 생산능력은 18만 리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9월 가동을 목표로 상반기 중 착공에 돌입한다. 제5공장이 완공되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규모인 총 78만4000 l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5공장 증설로 제2바이오캠퍼스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36만㎡에 달하는 11공구 부지에는 제5공장을 시작으로 추가 생산공장 및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등이 순차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투자금은 총 7조5000억원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1바이오캠퍼스에 이어 제2바이오캠퍼스가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고객사 위탁생산(CMO)의 예상 수요와 바이오 의약품 산업 성장세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제5공장 증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누적 수주 금액은 95억 달러(약 12조46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0억 달러(2조 60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누적 수주 건수는 CMO 74건, 위탁개발(CDO) 101건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3공장은 풀(full) 가동에 가까운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부분 가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조감도.

을 시작한 4공장의 경우 고객사 8곳의 11개 제품에 대한 CMO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26개 고객사와 34개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논의 중이다. 글로벌 빅파마 가운데서는 20곳 중 12곳과 CMO 계약을 체결했다.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아웃

소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4공장 이후에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제5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제2바이오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내 초격차 경쟁력을 달성하고 글로벌 톱티어(Top-Tier)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원자재·탄소중립법, 韓 기업에 공급망 다변화 계기”

EU집행위, CRMA·NZIA 초안 공개
무역협회 “재활용 수요증가 예상
우리기업, 전략적 접근 필요할 것”

유럽연합(EU)이 전략 원재자와 탄소중립산업의 역내 제조역량 강화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에겐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 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과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원자재법(CRMA)’과 탄소 중립 기술 제조 역량 강화와 관련해 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취지로 유럽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불린다.

핵심 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은 10%, 제련·정제는 40%, 재활용은 15%

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게 목표다. 사실상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현재 EU는 전기차와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아울러 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역내에서 에너지 저장과 전기 동력 모빌리티용 배터리 등 전략 기술을 제조하고 상당량의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상 기업은 2년마다 공급망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사내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가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의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게 골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조빛나 지부장은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 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U가 중국을 제외한 교역국과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우리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 지부장은 “핵심 원자재 재활용 기술 투자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폐배터리 수거, 재활용, 소비가 유럽 역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배터리 재활용 시장 연 30% 성장 전망”

≫ 1면 ‘제3국 원자재 수입’서 계속

초안에는 직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폴란드에 공장을 운영 중인 LG에너지솔루션, 헝가리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SDI와 SK온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 “더 커진다”

CRMA 전기차 모터 부품인 영구자석의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정보 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설정될 세부 조항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와 공장 현지화 진행돼야 유럽 시장 점유

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 CRMA는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역량은 필수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활약하고 있는 곳은 포스코홀딩스, 성일하이텍, 아이에스티엠씨, 유미코아 등이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기업라이사이클(Li-Cycle)에 6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6%를 확보하며 재활용 분야에 투자 중이다. 라이사이클은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1세대 전기차 재활용이 본격화되는 2025년부터 본격 성장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尹 대통령, 訪美·G7 릴레이 외교… 3國 공조체제 본궤도

한일정상회담 통해 관계개선 물꼬
공급망·신산업·안보 협력 강화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비난여론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으로 한일관계 개선 물꼬를 튼 데 이어 내달 미국 국민 방문과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국 공조 체제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릴레이 외교전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법을 '제3자 변제'로 결단함으로써 전격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서를 외교 재개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양국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 의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

공급망 협력과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콘텐츠·소비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력 확대, 우주·양자·바이오·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와 금융·외환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은 12년 만의 서를 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제, 안보대화 재개 등의 성과를 냈으나 일본의 과거사 관련 추가 사과나 반성도 없고,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참하는 등 국내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적됐으며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입 수산물 문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길에 여러 난관도 존재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포괄적 전략적동맹에 기반한 첨단기술·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

미일 3국 협력과 공조를 강조한 만큼 일본 순방 성과와 더불어 미국 국민방문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한미·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뤄진다면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논의 등 한미일 공조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국내 수출 年 26.9억弗 증가 경제성장률 0.1%p 상승 효과”

상의 한일관계 악화 이전 수준 분석
철강, 석유제품 등 13대 품목 악영향
“관계개선, 수출증가율 반전 도움될 것”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구조가 한일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국내 연간 수출액이 26억9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한일 관계 개선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 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 있다”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 신규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리오프닝, 원전·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중동 특수 등과 함께 국내 경제의 희망요인으로 기대된다.

SGI는 지역별·품목별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 이전인 2017~2018년과 현재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산업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평균) 11.7%에서 2022년 10.4%로 석유제품은 동기간 10.0%에서 8.2%, 가전은 7.7%에서 6.4%, 차부품은 4.0%에서 2.2%로 많이 축소됐다.

SGI는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올해 1~2월, 12.1%로 급락한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 투자 확대도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준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꼭지
잘 잠그기**

**양치컵
사용하기**

**물 받아서
설거지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양변기에
페트병 넣기**

**빨래감 모아
세탁하기**

가뭄, 함께 노력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족할수록 아끼고 나누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잘 잠그기,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에 힘을 보탬시다.

비트코인 일주일새 35% ↑… 불안정 금융시장 피난처 되나

코인마켓캡 2.8만 달러 돌파해
제2의 FTX사태 우려 하락세 진정
美 예금 보호 대책 발표하기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 미국 은행들의 잇단 폐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대체 자산인 암호화폐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만7500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일주일 사이 35% 넘게 폭등한 상태다. 연초와 비교하면 65% 오른 상태다.

비트코인은 SVB은행이 파산한 지난 10일 1만97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제2의 FTX사태를 우려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 하락세는 진정됐다.

이후 지난 12일 2만달러 회복을 시작으로 13일 2만2000달러 14일 2만4000달러 돌파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최근 파산한 미국 실버게이트은행, SVB, 시그니처은행은 모두 암호화폐와 관련된 은행이다. 실버게이트은행의 예치금 80%가 암호화폐 산업 기반이었고,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의 준비금 일부가 예치된 곳이다. 시그니처은행은 예치금 20~30% 암호화폐 산업에 쓰였다.

미국 금융당국은 금융시장과 암호화폐시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해 예금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웠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공동 성명을 통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Fed와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25만달러다.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미국

인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당신의 예금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의 조치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금융시장의 위기가 다시금 불거지자 암호화폐시장은 오히려 피난처로 등극하면서 폭등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11개 대형은행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격자 파산을 막기 위해 300억 달러(약 39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JP모건, 씨티그룹,뱅크 오브 아메리카(B of A), 웰스파고는 각각 50억 달러를 제공하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25억 달러를 지원한다.

지난 17일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스위스 2대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CS)에 최대 7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파산과 폐쇄가 전통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면서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이 혼란을 헤쳐 나갈 것이라는 낙관론적 관점이 커

진 이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시장 위기가 지속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달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들의 연쇄 파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을 중단해야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기술 분석가인 라케쉬 우파드하예(Rakesh Upadhyay)는 “현재 수준과 3만 2000달러 사이에는 큰 저항이 없어 매수 세력은 단기간에 이 거리를 쉽게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격대마저 넘어서면 3만5024달러까지 상승 추세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루나-테라 여파 국내 가상자산 시총 반년만에 4兆 줄어

일평균거래 43% ↓ 예치금 38% ↓
거래업자 영업이익도 42% 급감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루나-테라 사태와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영향이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사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3조원과 비교해 4조원 줄었다.

◆ 하루평균 거래금액 3조원…43% 감소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지난해 하반기

총 거래금액은 545조원으로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3조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총거래금액이 951조원, 하루평균 거래금액이 5조3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43% 감소했다.

평균 수수료율은 0.16%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매출액은 578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원과 비교해 42% 줄었다.

영업이익은 1274억원으로 같은 기간 80%가량 급감했다. 매출액 감소와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거래업자 종사자수는 총 209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48명 증가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관련 인원은 총 298명으로 같은 기간 32명 늘었다.

◆ 가상자산도 안전 선호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심해지며, 글로벌 10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비중도 늘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국내 상위 10대 가상자산 중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포함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등 5개다.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은 상반기와 비교해 11%포인트(p)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중복을 포함해 1362개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9개 줄었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625종이

다.

이 중 특정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389종으로 전체 가상자산(625종)중 62%를 차지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34%(132개)가 시총 1억원 이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변동, 유동성 부족 등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거래지원이 중단된 가상자산 68종 중 약 70%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이다. 프로젝트 위험으로 중단된 가상자산은 27종, 시장위험으로 중단된 가상자산은 12종이었다.

◆ ‘30대 남성’ 가장 많이 투자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원화예치금도 지속적으로 하락했

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성 거래자금은 총 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8% 줄었다.

가상자산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연령대는 30대로, 주로 남성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90만명으로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176만명(28%), 20대 130만명(21%), 50대 99만명(16%)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이용자가 총 427만명으로, 여성 이용자 200만명의 2배를 넘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50만원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으로 1억원 이상을 보유한 이용자는 2만5000명(0.4%), 100만원 미만 보유자는 477만명(76%)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5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는 435만명으로, 대다수 이용자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中 증시 ‘제로코로나’ 시절 회귀… 올해 시총 550兆 증발

차이나 뉴스&리포트

MSCI 중국지수 SVB 사태 등 하락
올 20% 상승폭 반납… 작년말 수준

‘위드 코로나’에 들쭉였던 중국 증시가 ‘제로 코로나’ 시절로 되돌아갔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중국 경제는 지지부진한 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겹쳤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날아간 시가총액만 550조원이 남는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MSCI 중국지수는 지난주 SVB 사태 등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20%에 달했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작년 말 수준으로 주저앉았

다. 지난 1월 27일 정점을 기준으로 날아간 시가총액은 3530억 달러다.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 역시 7주 연속 하락 행진에 작년 말 수준까지 하락했다. 24%나 급락하면서 시장에서 700억 달러 안팎이 증발했다.

MSCI 중국 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중국 본토와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 712개의 주가를 따라간다.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63개의 주가를 추적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 메이투안 등의 주가는 올해 최고가 대비 적어도 19%, 최대 34%까지 급락했다.

후이전자산운용 다이밍 펀드매니저

는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자산은 없다”며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언제 끝날지는 중국의 강력한 성장세가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내외 모두 악재만 산적해 있다.

미국에서 SVB를 포함해 중소은행 3개가 이미 파산했고, CS의 유동성 위기는 순식간에 글로벌 금융위기설로 번지는 분위기다. 중국 내에서는 자동차 업체와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 전쟁을 시작하면서 실적 회복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국태군안증권 다이칭 애널리스트는 “경제 회복의 강도와 해외 금융 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의구심으로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에 나서고 있다”며 “일부 업종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한 야외 쇼핑물을 걷고 있다. /AP·뉴시스

의 경쟁적인 가격 인하와 보조금 전략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움직임도 아직은 인상적인 것이 없다. 신임 리창 중국 총리는 첫 언론 브리핑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기피 정책 중 하나인 ‘공동 변경’ 같은 기존 공산당의 주

요 정책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약속만 되풀이 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보고서 통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과 제도화된 조치가 없다는 것은 기업 신뢰도가 단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우리가 그리는 2030부산엑스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기후변화, 양극화와 같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막 오른 선거제 개편... ‘비례성 강화·의원정수 확대’ 쟁점

김진표 의장 임기내 개혁 표명
23일 전원위 구성안 의결 예정
與 ‘중대선거구제’ 도입 긍정적
野 ‘소선거구제’ 방식 유지 입장

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남기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으로 꼽힌다.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 정치권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 299명 전체가 참여해 안전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하는 회의체다. 선거제 개편안은 각 의원마다 입장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에서 토론한 뒤 결론 내리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내 선거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라 성사된 전원위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



조해진(왼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병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표제 등 세 가지 안전에 대해 토론했다. 이들 안전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전원위에 올리기로 의결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여야 의원 299명은 오는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선거제 개편안을 위한 전원위는 2주간 5~6차례 열리며, 이곳에서 논의한 결과물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회

의에서 정개혁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를 제안했다. 선거제에 따라 국회의원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논의 끝에 정개혁위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전으로 정리했다.

먼저 1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만 변경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의석수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먼저 전국을 6곳으로 구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게 된다. 이어 추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또 한 번 나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47명)보다 50명 늘어나 총 97명이 된다.

2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안과 유사하다. 대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배분해주는 ‘연동형’ 방식 도입이 다르다. 다만 정당 득표율 반영 비율은 기존 연동형보다 다소 낮추게 된다.

3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제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1안과 같다. 다만 1~2안과 달리 현행 국회의원 수(300명)를 유지한다.

한편 이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

사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편이다.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방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제로 위성정당이 탄생된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선출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선거제 개편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설문조사 내용에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왔다”고 했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의원수가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특권이 적어진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첫 고위당정협의회 참석

“근로제 개편 등 당정대 정책 소통 강화”

가뭇대책, 부산엑스포 유치 등 논의
한일정상회담 성과 강조... 野 공세 대응

새로이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같은 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승일 외교’ 공세에 맞섰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한일정상회담 후속 정책, 남부 지방 가뭇대책,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에 참석해 “민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팀워크를 잘 살려야 한다”며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69시간’ 논란에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고용노동부에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점 검토를 지시한 뒤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MZ 노동조합 의견 수렴 차원에서 관련 토론회도 가졌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김기현(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나가야 하는 한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과제·현안마다 보다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최근 경제를 보면 작년부터 우려했던 복합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 같아서 걱정이 많다. 서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당,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후속 조치 마련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께 알려질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총동

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하는 데 대해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 마치 구한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며 세계 정세 흐름을 무시한 채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또한 한일정상회담 당시 ▲반도체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회복 등 주요 결과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남부지방 가뭇 관련 장기적이고 항구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는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점검을 앞두고도 당과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승일외교’ 비판, 과도한 정쟁화 우려”

대통령실 尹 대통령 日 순방 브리핑
“국민·미래세대 위한 생산적 논의 해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승일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정쟁화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순방 기간 중에, 어제오늘의 야당 비판을 보면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게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 측에서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좀 더 지성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이익과 미래세대 이익을 위해 비판한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는 이제 친일외교를 넘어 ‘승일외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진표, 유럽·중동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국회의장)

9박 11일간 순방 일정 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공식 방문 후 귀국했다. 김 의장은 9박 11일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 의회 정상,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강화,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비롯해 각국 특색에 맞는 경제협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관광 수요와 관련 해외여행을 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교민사회의 경제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의 행보도 이뤄졌다.

/박정익 기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내가 살 집 먼저 보고 결정하는
! 후분양제 !

튼튼하고 품격 높은
! 고품질 건축자재 !

자산 마련의 기회를 열어주는
! 주거사다리 !

땅값은 빼고 건물값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반으로 줄인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40~60%
합리적인 분양가



건축공정률 90%
믿을 수 있는 후분양



자산 축적
주거사다리



백 년 동안 튼튼한
고품질 주택공급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서울 삽니다



BNK금융 빈대인號 출항… 화합·통합·디지털혁신 총력

빈 회장, 취임 동시 공식일정 돌입
첫 행보는 지역 스타트업과 미팅

SVB사태 發 리스크 확대 우려 속
다수 임기만료 앞뒀 조직안정 시급
부산-경남銀 전산통합 등 과제도

BNK금융의 '빈대인號'가 출항했다.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은 지난 17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BNK금융의 회장 자리는 3개월 가량 공석이었다. 그만큼 빈 회장의 해결과제도 산더미다.

빈 회장은 취임 첫 날부터 부산지역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빈 회장은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2017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부산은행장을 지냈다.

앞서 전임 회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어수선했던 내부 분위기를 정비해야 하는 빈 회장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부실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등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빈 회장의 주요 과제로는 ▲조직안정 ▲부산-경남은행 통합 ▲디지털혁신 ▲리스크관리가 꼽힌다.

◆임원 절반 이상 임기만료…인적쇄신 예상

먼저 BNK금융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조직 안정이 꼽힌다. 현재 BNK금융지주에서는 임원 대다수가 이달 말



빈대인 신임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그룹기를 흔들고 있다. /BNK금융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회장 공석으로 주요 금융지주보다 조직 정비 가 늦은 감이 있다.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을 제외한 6곳의 계열사 인사가 남아 있다.

앞서 BNK금융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의 수장으로 빈 회장의 사람들로 분류되는 인물로 대거 교체하면서 내부인사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차기 부산은행장에는 방성빈 전 지주전무(65년생 동아대), 경남은행장에 예경탁 부행장보(66년생 부산대), 캐피탈 사장엔 김성주 신용정보 대표(62년생 동아대)를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4월1일 정식 취임한다.

BNK투자증권은 현 김병영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며 BNK자산운용은 대표 교체가 유력하다. BNK저축은행과 BNK시스템, BNK신용정보, BNK벤처투자 등 4곳 계열사 대표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BNK신용정보의 경우 김성주 대표가 BNK캐피탈로 자리를 옮겨 후임 대표를 새로 찾아야 한다.

특히 부산은행의 경우 임원의 절반 이상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부산은행장과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한 19개의 임원 자리 중 11개가 곧 만료된다.

그룹 내 파벌문제 등 내부 분위기를 정비하는 것도 빈 회장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BNK금융은 부산상고와 동아대, 부산대 등으로 '내부 파벌'이 형성돼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투뱅크 통합 과제

빈 회장이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완전통합을 어떻게 풀어갈 지도 주목된다. 현행법상 서로 다른 은행이 전산을 통합하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에서 2개 이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방은행지주가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 통합 사안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합병을 전제로 전산 통합부터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두 은행의 비효율적인 분리 운영으로 인해 BNK 통합 앱을 구축하기 힘들어지면서, 디지털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경남은행 노조 등이 경영자율권 보장을 요구하며 합병과 전산 통합에 반대하고 있어 빈 회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지난 2014년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비용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부산은행과 전산시스템 통합과 합병을 여러 번 검토했지만 경남은행 내부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디지털화·내실 다지기 총력

BNK금융의 올해 목표는 '내실 경영을 통한 미래 성장 추진동력 확보'다. 빈 회장은 경기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예로 들며 '리스크 관리'를 강조

했다.

지난해말 기준 BNK금융 자산은 159조8857억원으로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8102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실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4558억원)과 경남은행(2790억원) 등 은행 계열사의 성과가 그룹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빈 회장이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새 먹거리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이유다. 이를 위해 디지털 체력을 키우고 새로운 비은행 이익창출 활로를 개척할 전망이다. 특히 빈 회장이 부산은행장 재임 시절 주력한 분야는 디지털 전환이다. 그는 2013년 경영진으로 선임된 이후 미래채널본부장을 맡아 디지털 금융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며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바 있다.

빈 회장은 부산은행장에 재임 당시, 지역은행 중 처음으로 모바일뱅크 '썸뱅크'를 출시할 정도로 디지털 중심 금융 산업 패러다임에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빈 회장은 취임사에서 "디지털 기반의 금융혁신을 통해 고객의 이익과 성장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비전을 바탕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카드업 강화하는 수협銀, 지주 전환 속도

'2023년 Sh카벤저스' 구성
비이자 수익 강화로 내실 주력

수협은행이 신용카드 부문 영업 확대에 나선다. 수협은행의 최대 숙원사업인 금융지주사 전환의 포석이란 해석이다. 이달 진행한 '카벤저스' 발대식에 강신숙 수협은행장이 직접 나선 만큼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협은행은 최근 신용카드 판촉을 위해 '2023년 Sh카벤저스'를 구성했다. Sh카벤저스는 영업력 확장을 위해 책임자급 직원 33명으로 구성된 신규 영업팀이다. 카드사업 강화를 통해 비이자 수익을 확대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수협은행의 카드사업 확대 행보를 두고 금융지주사 전환의 초석이란 의견이다. 지난해 수협은행이 금융지주 전환을 선언하면서 수익성 다각화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강 행장은 지난해 11월 은행장 이취임식에서 수협은행의 비이자부문 적자를 언급한 바 있다. 수협은행의 2021년 상반기 비이자부문 적자는 230억원 수준이다.

수협은행은 카벤저스를 통해 영업부문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신상품을 출시하기 보다는 기존 상품 판매량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강 행장 또한 현업시절 업계 '영업통'으로 잔뼈가 굵았던 만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수협은행은 올해 목표를 유효고객



수협은행 카벤저스 1기 발대식에서 강신숙 수협은행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50만명, 매출액 5조원으로 세웠다. 현재 수협카드의 가입자 수는 36만명이며 지난해 매출액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4만명의 소비자 확보와 2배의 매출액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수협은행은 개인신용카드와 법인카드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현재 수협은행의 주력 개인신용카드는 '썸(ZZIN)카드'와 '리얼?리얼!(REAL?REA!)카드' 등 2종이며 법인카드는 '비즈 탑(Biz Top)기업카드'다.

수협은행의 개인신용카드는 생활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썸카드는 매달 스타벅스, 이디야, 폴바셋 등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병원, 배달앱, 온라인쇼핑몰, OTT서비스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월실적에 따라 각 부문별 최대 1만원까지 할인을 적용해 매달 2만5000원까지 절약 가능하다.

리얼리얼카드는 대형마트, 카페,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영화 부문 혜택을

담았다. 국내 가맹점 최대 1.5% 청구할인하며 해외 가맹점 사용액의 2%를 캐시백한다.

법인카드인 비즈탑은 전월실적 1000만원 이상인 경우 0.5%의 포인트를 적립한다. 이어 여행자보험, 공항라운지 서비스 등을 포함했다. 법인카드와 개인신용카드 모두 시중카드사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협은행의 영업력 강화와 함께 상품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전업카드사와 경쟁하기 위해선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와 같은 특화상품이 필요해진다.

다만 수협은행은 특화상품이나 신상품을 출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아직 카드 가입자 규모를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PLCC상품 체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영업력 확대를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교보생명 환갑 맞은 코리안리, 새 CI 공개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차량보유고객 이벤트
행운의 숫자 찾으면 소정의 상품

교보생명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업계 1위에 선정됐다.

◆창사 이래 최초 1위 선정

교보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상식에서 생명보험 산업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혁신 능력부터 주주 가치,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 가치, 이미지 가치 등 총 6개 세부 항목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했다. 산업계 종사자 7864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194명, 일반소비자 3660명 등 총 1만17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 추구'라는 지속가능경영 철학을 꾸준히 추진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보험증권 발행', '청약 전 답변조회서비스(K-PASS)',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심사 및 컨택센터 구축' 등을 구축했다.

삼성화재가 차량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행운의 숫자를 찾아라'

삼성화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숫자를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어 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10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쿼즈의 정답을 맞히거나, '이번달 행운의 숫자', 실시간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코리안리 재보험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 출발을 선언했다.

◆'환갑' 맞이해 도약 노린다.

코리안리 재보험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 로고(CI)와 슬로건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공개한 신규 CI는 두꺼운 고딕체를 강조해 향후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굵기가 얇은 'Re'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대응력을 상징한다.

회사의 대표색(Corporate color) 또한 바뀌었다. 검은색 로고를 통해 당사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자는 목표다.

새로운 전략 슬로건도 발표했다. 슬로건은 '우리 스스로 도전해, 세상을 바꾸자(Challenge Ourselves, Change the World)'다. /김정산기자

삼성 ‘로봇’, 포스코 ‘친환경’, 기아 ‘중고차’ 新사업 현실화

산업계 미래 먹거리 확보 드라이브

삼성전자, 로봇시대 선제적 대응
초격차 위해 연구·개발 지속 투자

포스코, 지주사 중심 체계 본격화
친환경 가치 실행으로 성장 지속

기아, 고개중심 브랜드경영 고도화
사업목표에 중개업 추가 안전 승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기아 등
국내 산업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 15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글로벌
경기침체 확산 등 고금리 여파 등 어려
운 경영환경 속에도 대규모 투자와 신
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 다변화를 꾀하
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취
임 후 첫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삼성
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지목했
으며, 반도체 한파 속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
로 이어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왼쪽)과 송호성 기아 사장이 3월 1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려운 환경 속
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본질
에 집중한다는 진리였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고객이 더욱 풍요로운 일
상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와 가
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갑 테크(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비전
구체화 계획과 함께 향후 로봇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
에 나선다. 한 부회장은 “올해부터 견기



운동용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로봇사
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
에도 속도를 높인다.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글
로벌 불확실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
도체 시장은 신규 응용처 중심으로 중
장기 성장을 예상한다”며 “특히 데이터
센터의 경우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
U) 출시와 메타버스, 인공지능(AI), 자
율주행 등으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차세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생
산성 확보를 위해 필수 연구·개발(R&
D)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설비
투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미래를 위
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
구 포스터센터에서 열린 제55기 정기주
주총회에서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
래 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올해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
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회사는 당면
한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주회사 중심의
경영 체계를 본격 가동해 기업 가치를
확기적으로 높이고 친환경 가치 실행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부문은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지닌 스마트 제철소를 구현하
고 저탄소·친환경 생산 판매 체계를 조
기에 구축하겠다”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리튬, 니켈 생산 본격화와 신규
자원 저탄소 원료 확보 등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
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주총에서는 현안 중 하나였
던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서울에서 포함

이전을 포함해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임 사외이사로 김준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사내이사
로는 정기섭 전략기획총괄(CSO, 사
장),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부사장)
을 선임하고, 유병욱 친환경미래소재팀
장(부사장)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를 각각 사내이사와 기타비상
무이사로 재선임했다.

기아는 이날 서울 양재동 본사 2층 대
강당에서 제7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
다. 송호성 사장은 인사말에서 “고객 중
심의 브랜드 경영 고도화와 목적기반모
빌리티(PBV) 사업 실행 체계 구축, EV
9등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 출시로 판매
320만 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총에서는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위
해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
개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안이 승인됐
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
해 중소벤처기업부의 1년 유예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제로턴’ 핵심기술 개발 성공

(제자리 회전)

4륜 독립 구동·제어 ‘인휠 시스템’ 별도 동력전달 부품없이 효율성 ↑

현대모비스가 차량 네 바퀴 안에 구
동모터와 제동장치를 각각 장착해 독립
제어하는 ‘인휠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
다.

이는 차량 바퀴에 자유를 줘 사용자
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리
회전(제로턴)이나 게터럼 옆으로 이동
하는(크랩주행) 특수한 움직임도 가능
케 하는 기술이다. 향후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
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각 바퀴를 모터가
직접 제어하는 4륜 독립 구동 인휠 시스
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인
휠 시스템은 구동모터와 제어기 기술이
핵심으로 현대모비스는 관련 기술을 모
두 자체 개발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양
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아이오닉5 기반
으로 개발 차량을 구성해 현대차와 합
계 양산을 위한 신뢰성 검증 작업을 진



현대모비스 인휠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행하고 있다.

인휠은 전동화 차량에 적용되는 시스
템으로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시장에 대
응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인휠 기
술 개발에 나섰다. 인휠은 차량 바퀴에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넣는 개념이라 설
계 과정이 까다롭고, 동력 성능 및 내구
성 확보 등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은 기
술로 평가받고 있다.

인휠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동력
효율 및 전비 향상 ▲항속 거리 증대 ▲

주행 성능 개선 ▲특수 모션 구현 등이
다. 우선 차량에 인휠 시스템을 적용하
면 드라이브 샤프트(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기계 부품)와 같은 별도의
동력 전달 부품이 필요 없어 구동 효율
이 극대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전비 향
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휠 시스템은 전동화 차량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기존
구동시스템이 바퀴 안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휠은 네 바퀴를 각 모터가 직접 제
어하기 때문에 구동력을 효율적으로 배
분해 최적의 선회 성능이나 차체 자세
제어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4륜 인
휠 시스템은 전후좌우 효율적인 토크
분배를 통해 선회 성능 향상과 함께 약
20% 이상의 전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휠 시스템을 적
용하면 제로턴이나 크랩 주행 등 특수
모션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르노코리아 ‘더 뉴 QM6’ 출고 이벤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라이프 스타일 SUV ‘더 뉴 QM6’의 출고를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19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3월 중 더 뉴 QM6를 출고하는 1000명의 고객에게 구매 후 1년 내 차량 파손 시 새차로 교환해 주는 ‘내차 케어 보험’에 무상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

LGD OLED TV패널 탄소감축 효과 인정

카본트러스트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이 탄
소 감축 효과도 인정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카본트러스트에서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
혔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품이 카본 트러스
트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 정보를 투명하

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탄소배출
량 산전 표준에 맞춰 제품 생산과 출하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하게 검증
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부터는 초미세먼지(MLA)와 휘도 강
화 알고리즘을 결합한 ‘메타 테크놀로
지’로 에너지 효율도 더 높였다.

/김재웅기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자동화 등 글로벌 리더십 공고화

스마트홈 연합 CSA 멤버 미팅 참가
매터 결과 검토, 전략·협업 등 논의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을
논의한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스마트홈 글로벌 표준 연합
CSA 멤버 미팅에 참가한다고 19일 밝
혔다.

이번 행사는 CSA 134개 회원사에
500명 이상 멤버들이 모여 매터 표준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술 주제를 비공개로 협
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매터 1.0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매
터 결과를 검토하고 전략과 협업 모델
을 협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CSA 보드 멤버로 매터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왔을 뿐 아니라,
매터 컨트롤러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 스마트싱스 스테
이션을 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왔다.

이번 행사에서도 스마트싱스 플랫폼
전략을 소개하고 자동화 등 주요 기능
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

SK엔무브

ZIC 신제품 ‘X8·X10’ 출시기념 리뷰 이벤트

SK이노베이션 윤활유 자회사인 SK
엔무브가 SK ZIC(지크) 신제품 X8, X
10을 출시하고 출시기념 이벤트를 실시
한다.

SK엔무브는 X8, X10 ZIC 신제품

출시 기념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며, S
K ZIC 공식몰에서 제품 구매 후 리뷰
를 남기면 참여자 모두에게 500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제품뿐 아니라 S
K ZIC 공식몰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제
품이 리뷰 대상이며, 베스트 리뷰에 선
정된 10명에게는 2만 네이버 포인트를
증정한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실전 신기록’ LG엔솔, 차별화·집중 열쇠로 북미 성공 안착

작년 매출 25조, 영업이익 1조 돌파
견고한 배터리 수요 바탕 호실적

성장세 가파른 북미 전기차 시장
배터리 공장 건설 등 생산력 확장
핵심재료 현지화 통해 집중 공략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매출 25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출범 이후 연간 최대 실적 기록으로, 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 등 전 사업부문의 제품 출하량이 증가했으며 메탈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판매가 연동 등의 노력을 통해 거둔 호실적이 기반이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을 비롯해 현대차, 스텔란티스, 혼다 등과 JV 공장을 건설하고 중이고 배터리 업체 중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작년 9월 수주잔고는 370조원으로 2021년 말 수주잔고 260조원에 비해 100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북미 비중이 70%에 달할 만큼 북미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 북미 시장 대응력 강화



LG-GM 오하이오 얼티엄셀스 1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북미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유럽(26%) 및 중국(17%) 시장의 성장세보다 가파르다. IRA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이 잇달아 도입되며 배터리 수요 역시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5년 내 연 매출 3배 이상 성장,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달성’이란 중장기 사업 목표를 밝히며 북미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역 ▲고객

▲제품 ▲스마트팩토리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북미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우선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을 꾸준히 확장해 시장 선점을 가속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북미 지역에 GM(얼티엄1·2·3공장), 스텔란티스,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 함께 합작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시간 단독공장 등을 포함하면 2025년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은 250~260GWh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비

교해 최대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등 기반시설 확보 외에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핵심 원재료 확대 등 북미 공급망(Value Chain) 구축에 나서고 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핵심 소재의 경우 주요 협력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북미 현지화에 적극 나선다. 니켈·리튬·코발트 등 메탈의 경우 미국 FTA 체결국가 내에 위치한 채굴 및 정·제련 업체를 활용해 역내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양극재 63%, 핵심광물 72% 등 5년 내 북미 및 FTA 체결국가로부터의 현지화율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한 발 앞선 북미 시장 투자로 ‘승부’

LG에너지솔루션은 1998년 국내 최초로 IT기기용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될 중대형 배터리 분야의 잠재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2000년부터 중대형 배터리 연구 및 북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에 연구법인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

개발 활동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연구개발 2년 반 만에 미국 현지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2002년 7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세계적 경주대회인 ‘파이크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Pikes Peak International Hill Climb)’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이용해 개발한 전기차가 우승을 차지했고, 다음 해인 2003년에도 우승을 거머쥐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볼트(Volt) 배터리 공급을 위해 2012년에 북미 지역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하여 지금까지 전기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고 공급해왔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 대응을 위해 미시간 단독공장 증설 및 GM, 스텔란티스, 혼다 등과 대규모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랜 기간 배터리를 생산해온 미시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양산경험 및 노하우를 다른 북미 내 공장에도 적극 전파하여 공장 가동 초기의 생산성까지 조기에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박정원 회장 “과감한 투자로 미래시장 선점”

두산그룹 경영진 ‘콘엑스포’ 찾아
두산팍켓 글로벌 경영전략 점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미국을 방문해 두산팍켓의 올해 경영전략을 점검했다.

19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두산팍켓 임직원을 격려하고 과감한 투자로 미래시장을 선점할 것을 강조했다. 박 회장을 비롯해 박지원 그룹부회장, 스캇박 두산팍켓 부회장 등 경영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콘엑스포 2023’을 찾아 세계 건설장비 시장 현황을 살피고 두산팍켓의 올해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

박 회장은 두산팍켓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을 갖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첨단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자”고 말했다.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콘엑스포는 3년 주기로 미국에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왼쪽)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콘엑스포 2023’의 두산팍켓 부스에서 마이크 볼레버 북미 지역장에게 두산일두(斗山一斗)를 전달하고 있다.

열리며, 올해는 3월 14~18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180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두산팍켓은 2043㎡ 규모로 마련한 부스에서 전동화, 무인화 등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콘셉트 제품과 신제품,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두산팍켓은 엔진 없이 전기로만 구동하고, 무인 기술을 적용해 조종석까지 없앤 콘셉트 로더 ‘로그 X(Rogue X)’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이 현저히 적은 제품으로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위험하거나 오염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완전 전동식 트랙 로더’ T7X를 스킵 로더에 적용한 STX도 공개했다.

박 회장은 두산팍켓 부스를 찾아 제품과 기술을 점검한 뒤 “두산팍켓은 세계 최초로 스킵 로더를 개발했고, 완전 전동식 로더 역시 세상에 처음 선보인 ‘혁신 DNA’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두산팍켓 북미지역의 마이크 볼레버 지역장 등 임직원들에게 ‘2023 두산 경영대상’을 시상하고 순금으로 만든 ‘두산일두(斗山一斗)’를 전달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탄소중립시대 미래도시 비전 제시

5월까지 ‘해비타트원’ 전시회

현대자동차가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도시를 표현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현대차는 18일부터 5월까지 2달간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한 ‘해비타트 원(habitat one)’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7월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1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순회 전시로, 올해도 같은 주제하에 새로운 상상력을 더해 진행한다.

현대차는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생명공학에 특화된 건축 및 디자인 혁신 그룹 에콜로지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체험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게 될 미래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해비타트 원(Habitat One) 트리 원

세대의 일상을 제시한다. 전시의 메인 작품인 ‘트리 원’은 3D프린터로 제작된 바이오 플라스틱 구조 안에 녹조류를 주입해 실제 나무와 같이 본체에 탄소를 저장하고 대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인공 나무와, 이와 연결된 녹조류 ‘알게(Algae)’ 배양 장치로 구성된 작품이다.

/양성운 기자

‘저작권 분쟁 勝’ 위메이드 2579억 받는다

싱가포르 ICC 중재 손해배상금 확정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중국 성취게임즈(전 산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부는 성취게임즈 등이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성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버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KT스카이라이프 양춘식, 사실상 대표 직무대행

양 전무, 사내이사 선임 안건 통과
노조 “하루전 통보, 기습 상정” 반발

KT스카이라이프가 오는 3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양춘식 경영서비스본부장(전무)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내정자로 선임된 윤정식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이 사임한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가 차기 대표 선

임 없이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양춘식 경영서비스본부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내정한 만큼 이번엔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양춘식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된 후 노동조합은 “KT로부터 하루 전 통보를 받고 이는 기습적으로 상정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KT스카이라이프에서 전무급 인사

가 사내이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성명을 통해 “양 전무는 상무, 전무급 중 사상 초유로 사내이사, 이사회대표 구성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양춘식 전무의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양 전무의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춘식 전무의 사내이사 임기는 1년으로, 내년 이사회에서 사내이사직을 더 맡을 지 결정을 하게 된다.

/채윤정 기자

 동아오즈카

스파클링 멀티비타민

오로나민C



비타민B,C 벌꿀 아미노산이
오늘의 생기와 활력을 확실히 올려드립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부드럽고 달콤한
치약산 벌꿀



레몬 11개분 (300g 기준)
비타민 C



비타민 B₂, B₆



아미노산 함유



인공색소, 보존료
무첨가



비타민 보호 갈색병

증권사 “신규고객 모셔요”… 랩어카운트 역량 강화 나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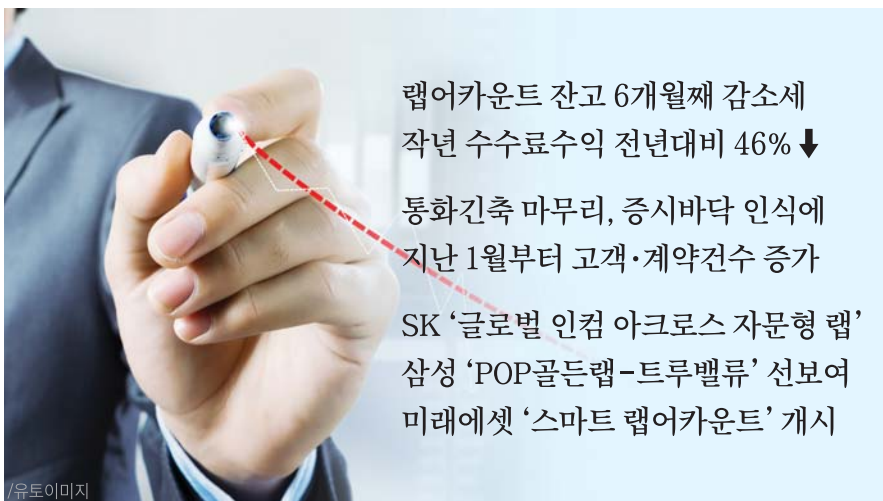
증권사들이 지난해 증시침체에 자금 이 대거 이탈했던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서비스)부문 강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통화긴축 기조가 연내 마무리되고 증시가 바닥을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주요 수익창출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으로 보인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주식·채권·대체투자 상품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고객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WM) 서비스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성장세를 보여왔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랩어카운트 잔고는 지난해 5월 말(153조 7614억원) 고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7조8456억원이 감소했으며, 레고랜드발(發)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9조3767억원이 급감했다. 이



랩어카운트 잔고 6개월째 감소세
작년 수수료수익 전년 대비 46% ↓
통화긴축 마무리, 증시 바닥 인식에
지난 1월부터 고객·계약건수 증가
SK ‘글로벌 인컴 아크로스 자문형 랩’
삼성 ‘POP골든랩-트루밸류’ 선보여
미래에셋 ‘스마트 랩어카운트’ 개시

후 11월에 9조6935억원, 12월에 8조 3665억원이 각각 줄며 지난 하반기에만 약 35조원 넘게 빠졌다.

투자자들의 이탈에 증권사들의 랩어카운트 수수료 수익도 급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랩 수수료 수익은 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으며 삼성증권은 지난해 21년(304억원)대비

32% 감소한 206억원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수수료 수익도 각각 26%, 24% 줄었다.

다만 올해 들어 랩어카운트 잔고, 고객 수, 계약 건수 등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증권사 일일형 랩어카운트 평균금액(계약자

산)은 114조237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15조1181억원)보다 8805억원 줄었지만 감소폭이 축소됐다. 고객 수와 계약 건수는 지난 1월 기준 전월 대비 각각 2390명, 2225건 증가했다. 이는 작년 12월 고객 수와 계약건수가 전월대비 각각 4490명, 5412건 감소한 데 반해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올들어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신상품을 출시 등 서비스를 강화해 수익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15일 금융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글로벌 인컴 아크로스 자문형 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랩어카운트 서비스는 아크로스가 지난해 5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Akros Monthly Pay out’ 상장지수펀드(ETF)와 미국 주식을 활용해 운용한다. 매달 순자산의 0.

4%(연 4.8%)를 달러화로 분배금을 지급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3일 랩 어카운트 ‘삼성POP골든랩-트루밸류’를 선보였다. 30종목 내외로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치우치지 않은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으며 매크로 환경을 대비해 현금 비중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하나의 랩계좌에서 다양한 운용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개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랩어카운트 자금이 빠져나갔으나 올해는 통화 긴축기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증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신상품 출시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와이지엔터, 트레저 등 성공데뷔에 수익개선 기대감

metro 관심종목

주가 3200원 오른 5만5100원
작년 4분기 매출액 1250억, 40%↑
수익정산 이연에 컨센서스는 하락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와 같은 메가 IP(지식재산권)뿐 아니라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등 신인그룹의 성공적 데뷔가 예상되면서 수익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 대비 3200원 오른 5만51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하더라도 4만원을 밑돌았던 와이즈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중 6만원대 초반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5만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와이지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증대에 도 컨센서스(전망치 평균)을 하회한

〈와이지엔터 목표주가〉 /자료= 각 사

증권사	목표주가
NH투자증권	7만7000원
흥국/한화	7만5000원
교보증권	7만원
하나증권	6만9000원
유진투자증권	6만8000원

바 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250억원, 영업이익 157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5%, 18.4% 증가했다. 다만 당초 영업이익 전망치로 2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밑돈 것이다.

다만 이번 컨센서스 하락은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수익 정산 시점이 이연돼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수

적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블랙핑크 콘서트 및 트레저 MD 관련 이익이 이연됐고, YG인베스트먼트의 영업손실에 따라 연결 이익 훼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다만 수익 인식 시점 차이일 뿐 관련 이슈 모두를 고려할 경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블랙핑크, 트레저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활동에 힘 입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블랙핑크 글로벌 투어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까지 총 56회가 예정돼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최장기간 최다 횟수 규모 글로벌 투어임에도 홈페이지 공연일정에 여전히 ‘And more’가 있어 추가 공연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블랙핑크뿐 아니라 지난 2020년 데뷔한 다국적 보이그룹 트레저의 일본

투어 성공도 향후 주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공연 중 아레나 투어에서 22만명, 추가 2회 교세라 돔 오사카 공연에서 8만명을 모으며 일본 내 인기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차세대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까지 데뷔가 가시화되면서 주가 반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이현지 연구원은 “올해부터 아티스트 단위의 멀티 조직을 구성하고 프로듀서센터를 신설해 약점으로 꼽혀왔던 아티스트 활동 공백기를 크게 줄여 실적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이 7만7000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더불어 이달 들어서 보고서를 제시한 4개사 중 흥국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익 추정치를 높여 잡으면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영석 기자 ysl@

서울 아파트값 0.16% ↓… 하락폭 5주 연속 축소

강북구 -0.31%서 -0.26%

도봉구 -0.39%서 -0.29%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5주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2주째 상승하면서 회복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1%)보다 0.05%포인트(p) 축소되면서 5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31%→-0.26%)가미아·수유·변동대단지, 도봉구(-0.39%→-0.29%)는

창·쌍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42%→-0.37%)가 등촌·방화·가양동 구축, 금천구(-0.46%→-0.37%)는 시흥·독산동 대단지, 관악구(-0.33%→-0.27%)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영등포구(-0.25%→-0.23%)는 영등포·문래·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동남권의 경우 지난주 유일하게 상승으로 전환했던 송파구(0.03%→-0.01%)가 다시 하락 반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곳 중 서초구(-0.01%→-0.01%)를 제외한 강남구(-0.10%→-0.07%)와 용산구(-0.23%→-0.14%)

는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상승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며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3일 기준)는 68.4로 전주(67.4)보다 1.0p 상승했다.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이지만, 최근 급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

로 2주째 오름세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거래 증가에 따른 매도 호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지역 및 가격에 따라 온도 차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호가를 낮춰 급히 처분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 내에서도 입지나 가격 구간별 온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분양 캘린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조감도. /대우건설

이번주 707가구 분양 건본주택 2곳 오픈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1개 단지 총 707가구(일반분양 70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농소동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등 2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에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 규모다. 단지에서 반경 1km 정도 거리에는 정읍역과 호남고속도로 정읍IC,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한다.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관공서 등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정읍북초, 수성초, 정밀중, 정읍제일고, 서영여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원에 휘경3구역 재개발에 짓는 ‘휘경자이디센시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들이 주변에 위치한다. 근 거리에 대형 편의시설, 의료시설이 자리해 생활이 편리하다.

/김대환 기자

“엔비디아 독주 막고 ‘핵심 두뇌’ AI반도체 대항마 나선다”

도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매드 맥스’ 퓨리오사 이름 따와
뇌와 같은 NPU, 반도체 완벽 구현
1세대 제품 ‘워보이’ 본격 양산

백준호 대표
“챗gpt가 촉발시킨 시장에서
새 리더십 만들어가는 것이 꿈”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독주체제를 막겠다고 나선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의 두뇌역할을 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창업 7년차 회사가 대항마를 자처하고 나서면서다.

퓨리오사AI와 이를 창업한 백준호 대표(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AI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챗gpt가 촉발시킨 이 시장에서 새 리더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퓨리오사AI 본사에서 만난 백준호 대표의 설명이다. 회사 이름은 백 대표가 좋아하는 영화 ‘매드 맥스’의 여주인공 퓨리오사(FURIOSA)에서 따왔다.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인 퓨리오사AI의 핵심 제품은 NPU(Neural Processing Unit)라고 하는 AI반도체다. NPU는 사람 뇌의 신경망을 모방했다고 해서 ‘신경망처리장치’로 불린다.

“자율주행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1회에 한개씩 연산처리하는 CPU(중앙처리장치) 방식은 힘들다. 전기를 많이 쓰는 GPU로도 한계가



백준호 대표가 ‘워보이’를 장착한 컴퓨터를 보면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있다. 우리가 개발한 1세대 AI반도체 ‘워보이(Warboy)’는 인공 신경망을 칩 내부에 심고, 뇌의 연산과 판단 기능을 수학적 모델로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 사람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AI서비스는 서버 공급자, 클라우드 사업자, AI서비스사업자로 나뉜다. 이 가운데 퓨리오사AI가 만든 AI반도체는 서버에 장착돼 두뇌 역할을 하게 된다.

백 대표는 “AI반도체의 핵심은 기존 반도체에 비해 전력소비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더욱 빠르고, 한꺼번에 많은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핵심이다. 8차선 도로가 아닌 1000차선 도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AI반도체”라고 설명했다.

GPU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다른 길을 가면서 NPU 시장에서 또다른 글로벌 강자가 되는 것이 백 대표와 퓨리오사AI의 목표인 셈이다.

1세대 ‘워보이’는 글로벌 AI반도체

벤치마크 대회인 ‘MLPerf’에서 지난해 4월 이미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엔비디아의 칩과 비교해 같은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지연시간은 더 짧고, 처리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백 대표는 “1세대 칩은 2021년 8월에 시제품이 처음 나왔다. 올해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개당 150만원 가량하는 제품 약 5000개 오더도 확보했다. AI반도체가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해 실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국내에선 우리가 처음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백 대표의 이 이야기는 글로벌 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AI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설계한 제품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AI반도체 시장에서 스피드와 집중력이 생명이다. 설계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고

훨씬 높은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엔 AI반도체의 본질적인 경쟁력인 ‘설계 능력’이 충분하다.”

게다가 1세대 제품 워보이는 ‘말해보카’ 애플리케이션의 광학문자인식(OCR) 기능에 적용돼 카카오프라이즈의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NPU칩이 상용화된 사례인 동시에 상업적 경쟁력까지 검증은 마친 것이다.

백 대표는 ‘말해보카’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미국과 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발길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퓨리오사AI는 1세대 모델 양산과 동시에 2세대 모델(Renegade)도 이미 개발을 끝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2세대 칩은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영역을 포함해 자연어 처리까지 가능한 등 모든 AI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챗gpt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웃음). 엔비디아의 경쟁모델과 비교해선 같은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전력 소비량은 40% 가량 절약할 수 있다.”

이미 시동은 걸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인 백 대표는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석사를 마친 후 미국 반도체기업 AMD를 거쳐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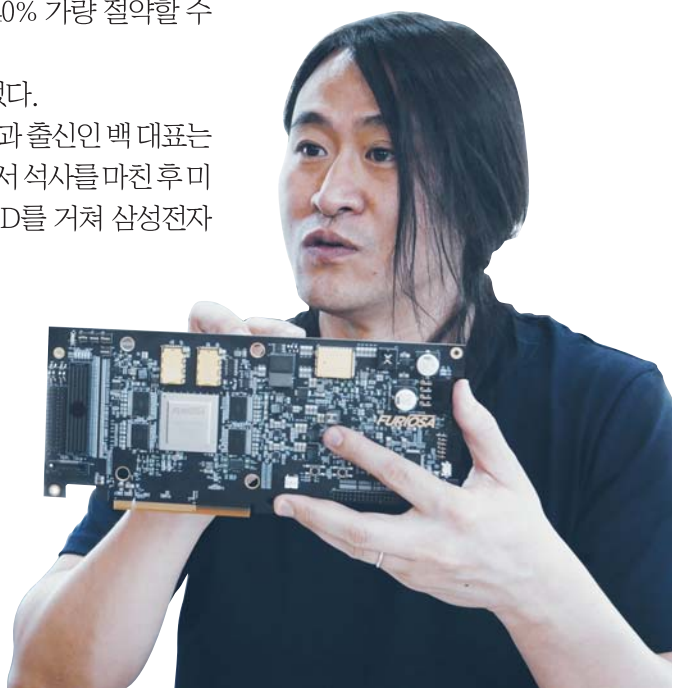
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다. 퓨리오사AI는 2017년 5월 창업했다.

“(창업을 하면서) 1년 해보고 안되면 (동료들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초기에 13억원을 투자받아 여기까지 왔다. 돈을 적게 투자받은 것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자칫 칩을 제조했다면 설계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초기 3년간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80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의미있는 결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2세대 제품은 매출의 절반을 글로벌 시장에서 달성해나갈 것이다.”

한때는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는 백 대표는 “다시 (도전) 하려면 안할 것 같다”며 멋지게 웃었다.

지금은 어려움을 헤치고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과 그의 말처럼 새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꿈을 함께 꾸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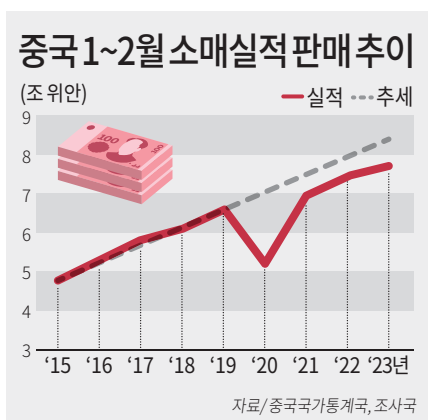
“中 리오프닝에도 소비·수출 불확실성 높아”

경제성장률 목표 5% 내외
소비속도 팬데믹 이전 못 미쳐
안정적 경제성장 지원 할 듯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소비속도가 팬데믹 이전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회복세도 투자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벌어질 수 있고, 수출 또한 주요국 경기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전면적인 부양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리오프닝 이후 중국경제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5.5%)보다 낮은 5% 내외로 설정했다.

경제성장률을 낮춘 이유는 중국의 소매판매가 팬데믹 이전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감소했지만 올해 1~2월중 3.5% 증가 전환했다.



대면활동으로 외식서비스, 화장품, 의류 등의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팬데믹 기간 중 추가 저축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부동산 시장의 경우 부동산 가격 회복세가 투자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상당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종합부양책을 도입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투자 및 판매 등의 지표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현재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가격·판매량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3선도시의 경우 가격·판매·투자 등 모든 지표가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출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경기 회복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 지난해 중국은 11~12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재가동으로 생산차질이 해소되며 회복됐지만,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섬유, 의복, 가구 등의 소비재 수출도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정부는 내수확대, 산업고도화 및 금융·경제리스크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부양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수요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부동산경기, 수출부진이 하반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시점 및 정도와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日 물가상승에 명목임금 상승 압력 지속

기본급 지난해보다 1~1.5% 상승 예상

일본의 임금이 당분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일본의 임금상승 압력 확대 배경’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말 보너스 지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목임금이 1년 전보다 무려 4.1% 상승했다. 1997년 1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혼다,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은 5~7%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일본 전체 노조원의 약 70%가 속한 일본노동조합총연맹회가 발표한 개별 노조 요구 임금인상률도 3월 현재 4.4%로 전년의 2.9%를 크게 상회했다. 주요 전망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1~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기본급 인상률 0.6%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기업에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2.3%로 소비세 증세 영향을 제외하면 1991년 이후 3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은 4%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목표로, 세제지원, 공공분야 급여인상, 기업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노사정회의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고 노조와의 단독 간담회도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임금이 적정수준에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이 일본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관계자는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 일본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며 “물가안정 목표 달성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기업들의 임금 인상 여력 등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이나 노동생산성 저하 등은 전체 임금인상을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바닷물 끌어 민물로… 보길도에 내린 ‘드림즈호’ 4000억 단비

국비 70%, 민간 투자 30% 투자 드림즈호 담수 최대 450t 생산 물 부족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으로 버티 섬 지역 광역상수도 설치 시급해

극심한 가뭄에 식수 공급마저 어려운 호남권과 주변 섬 지역에 단비와 같은 선택이 나타났다. ‘드림즈호’, 세계 최초의 한국형 해수담수화 선택이다. 서남해안 주변 섬 3348곳, 유인도 472곳의 지형에 맞게 건조된 선택이 바다에서 끌어온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국비만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국비 70%, 민간 투자 30%로 추진될 예정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드림즈호는 전남 여수시 대두라도와 완도군 소안도에 담수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2018년 4월부터 국비 222억원을 투입해 만든 드림즈호는 담수를 하루 300t 이상, 최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 물을 저수지로 내보내고 있다.

/공동취재단

대 450t까지 생산 가능하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는 목적이다. 바로 마셔도 문제가 없어 식수로도 제격이란 평가다.

해수담수화 선택 개발 책임자인 이상호 국민대 교수는 “몇몇 국가에서 바지선 위에 설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동 가능한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만든 적 있지만 드림즈호처럼 자체 엔진으로 자

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해수담수화 선택은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물 안보와 물 복지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관심이 커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남권 포함 남부 지방 가뭄이 극심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뭄으로 주

변 섬 지역 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거의 ‘심각’ 단계인데 대부분 호남권이라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최남단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로 들어가야 하는 보길도의 경우 긴 가뭄으로 2일 급수, 6일 단수 등 제한급수를 실시 중이다. 각 가구에는 물을 담아두기 위한 파란색 대형 물탱크가 놓여 있었다.

보길도에서 만난 주민 조충연(80) 씨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세수한 물은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쓰고, 목욕은 4~5일에 한 번 하는 꼴”이라며 “식수 비상 공급만으로 부족해 주변에서 생수를 보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보길저수지는 거의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저수율은 15.8%로 예전의 절반 수준, 주민들이 한 달 간 쓸 수 있는 양이다.

그나마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 저류댐’으로 주민들은 버티고 있었다.

지하수 저류댐은 가뭄 대응을 위해 차수벽을 세워 지하수 유출을 막는 시설이다. 저장된 지하수는 저수지와 정수장을 거쳐 섬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현재 시험 운영 중인데, 계획량의 절반 수준인 하루 500~600t이 공급되고 있다. 이는 보길저수지 전체 공급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영목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기획처장은 “지하수 저류댐은 설치보다 지하수, 그리고 인근에 저수지가 있는 책임지를 찾는 게 더 어렵다”며 “섬 지역의 고질적 물 부족을 해결하려면 광역상수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길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하수가 있어 우리는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목욕도, 빨래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비가 더 오지 않으면 제한 급수 기간이 더 늘어날 거라고 했다. 할머니에게 조용히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올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 공공인력 20% 확대

농식품부, 외국인력 3.8만명 도입 국내 인력공급 인원 352만명 늘려

정부가 올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전년 대비 20% 확대한다. 외국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국내 인력공급 인원을 352만명(연인원)으로 전년(293만명) 대비 20% 대폭 늘린다. 그간 공공 인력 중개센터가 없던 경기 김포와 여주, 충북 괴산과 보은 등 9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해 총 170개소로 늘리고, 올



농촌 농번기.

해 1월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 구직자 모집을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외국인력의 농업 분야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8000명으로 전년(2.2만명) 대비 73% 확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1만4000명이 배정됐고,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는 121개 시·군에 2만4418명이 배정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해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1~2월까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해 전년 같은 기간(797명)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또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년 5개소 190명에서 올해 경기 안성과 강원 정선 등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다인건설 하도급대금 62억 지급명령

대금 54억·지연이자 8억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19개 업체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등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년 4월 ~ 2021년 5월까지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또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

드명으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한 건설사다. 2021년 1월 30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토목 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이후 현재까지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건설현장 준공을 위한 잔여공사만 수행 중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수급사업자들의 신고 10건을 접수하고 2020년 6월 1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이번 시행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기술보증기금-에너지공단

중소 에너지 절감 전환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에너지효율화 투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감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상호 발굴해 탄소기차평가보증을 통해 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기반의 저금리 대출을 복합지원하는 협약보증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금융결제원 중소기업 유동성 추가지원나서

중기벤처지원기관·금융결제원 전문기관 간 처음 협업 사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이 중소·벤처기업 유동성 추가 지원에 나선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금융결제원과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과 금융결제 전문기관 간 첫 협업 사례다.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은 최대 90일의 단기 유동성 공급 지원사업으로, 중진

공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제공 대금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중진공과 금융결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권의 팩토링 중복지원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정보 공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B2B 상거래 정보 연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정보 연계 ▲B2B 상거래기반 매출채권 업무 고도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및 기업평가 정보 공유 등에 힘을 모은다.

/김승호 기자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이전 GS건설 공공주택 데이터 프로파일링

한국전력, GS건설(주), KENTECH(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커뮤니티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지난 17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경숙 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과 김영신 GS건설 RIF.Tech(미래기술연구원)원장, 박진호 KENTECH 부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 K-BEMS 3.0 및 MG 플랫폼을 기술이전하고, GS건설은 공동주택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는 한편, KENTECH는 대학 캠퍼스내 에너지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자원을

을 분석하게 된다.

한전은 스마트빌딩에 최적화된 자체 개발 통합운영 솔루션, K-BEMS 3.0을 KENTECH에 기술이전해 교내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열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 및 제어함으로써 에너지자립률을 향상시키는 등 에너지자립형 MG 캠퍼스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경숙 본부장은 “한전은 KENTECH에서 나아가 나주 에너지밸리에 미래 신사업을 선도하는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이번 기술개발 협력과 같이 다양한 기업과 연구진이 참여하여 신기술을 실증하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에너지 어젠다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경남, 뿌리기업에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본격화

7개기관·도내뿌리기업100여사참석
공모사업 시행 20개사 지원 계획
‘경남기업119’ 규제개선 신고 운영

경남도와 한국전력이 도내 중소·뿌리 기업 100여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경남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에너지공단, 경남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지원청, 한국전력 경남본부, 한국남동발전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올해 뿌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업종이며,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 항공, 방위산업의 기초가 된다.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지만, 종사 기업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뿌리기업의



경남 중소·뿌리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별 주요 사업을 보면, 경남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중소·뿌리기업의 에너지 진단 및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해 20개사를 선정,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 ‘경남기업119’를 통해 기업에 상담, 규제개선 신고를 받는 한편, 85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한다.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형 지속가

능경영(ESG) 확산 사업을 통해 34개사를 공모·선정하여, ESG 경영진단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교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 기기로 교체하는 뿌리기업에 탄소펀드 및 동반성장펀드 35억 원을 활용하여 설치투자비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한국전력은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4대 고효율기기(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기) 교체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우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예산을 기존 55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품목도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기업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소개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과 뿌리기업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18억 원 규모의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합동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소·영세기업의 전기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기 교체 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도내 주력산업의 원가 경쟁력 확보 및 탄소배출 감축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에너지 효율 향상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에너지 효율화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컴퓨터 무상 점검·수리 진행

진주시는 정보취약계층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점검·수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진행한 무상 수리 사업 결과를 보완해 올해부터는 무상 수리 지원 대상을 관련 복지 단체까지 확대하고, 일반 데스크톱 PC 외에도 노트북 수리까지 지원해 사업 수혜 대상의 폭을 넓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국가유공자와 관련 복지단체 등이다.

/진주(경남)=김영찬 기자

강진군

보은산 ‘감성숲길’로 재탄생

강진군이 조성한 보은산 트레킹 길(둘레길) 1차 구간이 준공되었다.

이 구간은 보은산 약수터 삼거리를 시점으로 금곡사를 잇는 트레킹 길로 사업비 2억 6천만원(도 50%, 군 50%)을 투입해 노선 3.24km, 폐수로 52개소, 목계단 138계단, 이정표 5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트레킹 길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강진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등산로와 달리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될 수 있는 감성 숲길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난에 300억 지원

울산 울주군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경영안정자금 총 300억 원을 지원한다.

울주군은 지난해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100억 원을 늘려 지급한다. 또 이자차액지원율도 2.5%에서 3%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다음 달과 오는 6월, 9월 등 총 3차에 걸쳐 각각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를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진군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선포식 개최

울진군이 지난 17일 군청 광장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기념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 했다. 손병복 군수는 기념사에서 “성원해주신 군민들과 총력을 다해준 700여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울진은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미래 백년을 책임질 큰 성장동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 선정,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울진(경북)=이상호 기자



구룡포도서관 내부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

“바다품은 구룡포도서관 책 보며 힐링하러 오세요”

여행·바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테마 도서 전시 등 체험상설 진행

포항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도서관들이 아름다운 바다 경관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구룡포도서관은 도서관 어디에서나 책을 읽으며 구룡포 바다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지친 몸과 정신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여행·바다’를 특성화 주제로

한 자료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령화를 반영해 큰 활자의 자료도 비치하고 있다. 도서관 로비에서는 도서 원화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따로 마련된 전시실에서는 테마 도서 전시, 컬러링 엽서 체험 등이 상설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5만 6000여 명이 도서관을 방문했으며, 이용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목포, ‘남진야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금요일·토요일 오후 10시까지 운영

목포시가 전통시장을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목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해,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동절기 동안 휴장했던 남진야시장이 17일 재개장한다. 남진야시장은

자유시장 내에 마련되는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전통시장의 야간영업을 넘어 추억·문화·창조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개장 첫날에는 우리 지역 출신 가수인 윤선영의 축하 공연과 함께 농수로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판매대에는 나치호롱, 초밥 등 다양한 먹거리 등의 프리마켓 21개 매대가 판매를 준비 중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oh7505@

경남도,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단속

시군 협업 3~5월, 7~8월 점검
6월, 7월 검역본부와 합동 단속

경남도는 최근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 사체 유기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 제도 및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에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꾸준히 늘어 2018년 775개소에서 2023년에는 1243개소로 4년간 약 61%(468개소)가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동물미용업 588개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로 순으로 가장 많으며, ▲동물생산업 104개소 ▲동

물운송업 38개소 ▲동물전시업 25개소 ▲동물장묘업 8개소 ▲동물수입업 5개소가 등록돼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한 결과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서는 시정조치, 무등록 영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 영업자 필수 교육 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도내 반려동물 모든 영업장(1243개소)에 대해 시군과 협업해 3~5월, 7~8월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6월과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 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 등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을 강력히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고창군, 새 이름 단 ‘고창나들목공원’

초입 물놀이장 등 명품공원

고창군 초입에 물놀이장, 생활체육테마공원, 소나무와 자작나무숲 등을 갖춘 명품 공원의 이름이 ‘고창나들목공원’으로 확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읍 초입의 공원(석교리 산8)의 이름이 군민선호도 조사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창나들목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나들목’은 나가고 들고 하는 길목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단어다. 고창나들목공원은 읍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해 창의성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나들목공원은 총 13만 4450㎡ 면적에 테마숲,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도심이 시작되는 관문에 기존공원(생활체육테마공원, 새마을공원)과 연계해 군민에게 다양한 녹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공원 내 유휴공간을 재정비한 물놀이장 개장에 예정돼 있다. 무더운 여름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물놀이장 주변엔 공원 및 체육시설(족구장, 인공암벽장 등)이 만들어져 고창군 대표 여가·휴식·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고창(전남)=양수영 기자

남성 10명 중 8명 “평소 피부관리”… 꽃단장 男心 잡아라

유통업계, 남성 패션·뷰티 강화
현대홈쇼핑 ‘멋진 남자 쇼’

“야외활동 늘어 화장품 수요 증가”
작년 3040남성 매출 35% 급증

LF ‘마에스트로 시그니처 스토어’
맞춤제작 ‘데님 비스포크 존’ 운영
신세계 스튜디오톰보이 맨 매장 확대

3년 만에 벗은 마스크에 ‘상남자’도 ‘꽃단장’ 중이다. 외모 단장을 자신의 개성 표현 수단이자 경쟁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남성이 늘면서 남성 패션·뷰티 시장이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완전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완전 해제되면서 패션·뷰티 상품에 대한 남성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업계는 각종 프로모션을 쏟아내고 남성 전문 매장을 확충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남성 뷰티·패션 시장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남성 패션 특화 ‘멋진 남자 쇼’ 방송 화면. 남성들의 외모 치장이 매년 크게 늘면서 홈쇼핑 내에서 남성 고객의 위상도 달라졌다. 지난해 3040 남성 고객 매출은 2021년 대비 35% 늘었다. /현대홈쇼핑

우리나라에서 외모 치장에 노력하는 남성을 뜻하는 ‘그루밍족(Grooming 족)’이라는 신조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대다. 지난해 오픈서베이가 1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8명에 해당하는 79.8%의 남성이 “평소 피부 관리를 한다”고 답했으며 피부과 등 전문시설을 이용하는 비중도 16.3%에 달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18일 남성특화방송 ‘멋진 남자 쇼’에서 남성용 화장품 패키지를 TV홈쇼핑 최초로 판매했다. 이날 판매한 남성용 화장품 패키지는 피지오겔 DMT 포맨으로 기초화장품 세트였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남성 고객의 화장품 수요도 빠르게 증가해 선제적으로 남성 전용 화장품 방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도 기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남성을 위한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여 업계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멋진 남자 쇼는 지난 1월 처음 론칭한 3040 남성 특화 방송이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3040남성 고객의 매출이 2021년과 비교해 약 35% 증가하고, 재구매율 또한 65%에 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남성층 공략에 나섰다.

LF는 지난 16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5층에 ‘마에스트로 시그니처 스토어’ 2호점을 열었다. 시그니처 스토어는 기존 프리미엄 남성 수트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는 ‘소셜 라이프 웨어’를 중점 소개한다. 특히 데님 비스포크 존과 레더 존을 꾸려 특별한 프리미엄 상품을 찾는 남성 고객들을 겨냥했다. 데님 비스포크 존은 ‘허정운 비스포크 데님’과 협업한 맞춤 데님 바지 제작 서비스다.

신세계 또한 스튜디오 톰보이 맨 경쟁력 강화를 선언 한 후 이달 브랜드 모델 최정훈을 메인으로 한 2023 봄/여름 컬렉션을 공개했다. 스튜디오 톰보이 맨은 올해 매장을 20개까지 늘리며 오

프라인 유통망 확장에 나설 계획으로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남성복 단독 매장을 열었다. 스튜디오 톰보이에 따르면 지난해 톰보이 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0% 신장했는데, 올해에도 64%나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 되며 남성들의 화장품 구매도 늘고 있다. 위메프가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 메이크업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늘었다. 특히 아이브로우를 찾는 이들은 1127.1%, 비비크림은 109.2%까지 판매가 급증했다. 파운데이션(66.5%), 선크림(40.7%) 등도 많이 팔렸다. 남성 향수 카테고리 매출은 20.2% 늘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최근 외모에 투자하는 남성들이 많아진 데다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가능해지는 봄을 앞두고 그 수요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 회복에 맞춘 다양한 트렌드 패션·뷰티 아이템을 큐레이션, 관련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활용 매장 오픈

‘카페 지구별’ 재능기부 카페 13호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국환경공단,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지난 17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본사 내 ‘카페 지구별’을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3호점으로 오픈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카페 지구별은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는 최초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이자다. 스타벅스는 재능기부 카페 13호점 오픈을 위해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테이블 등 내부 인테리어와 전기 및 냉난방 시설, 배관설비, 간판 설치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바리스타 교육 등 기업 역량을 살리는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했다.

재능기부 카페 13호점은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이자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전량 회수되어 재활



스타벅스 코리아가 17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본사 내 ‘카페 지구별’을 민관 협력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인 재능기부 카페 13호점으로 오픈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용될 예정이며 탄소 저감을 위해 일회용 컵 없는 매장으로 운영된다.

매장 내부 인테리어는 스타벅스 커피찌꺼기를 재활용 꾸며졌다. 테이블, 전등갓, 아트월, 화분, 쟁반 등에 스타벅스 커피 3782잔 분량에서 나온 커피찌꺼기 56.73kg이 사용됐다. 대형 테이블(1개)에는 커피 1333잔 분량 19.9kg, 소형 테이블(2개)은 444잔 분량 13.3kg, 패널 테

이블(3개)은 128잔 분량 5.7kg, 전등갓(3개)은 111잔 분량 4.9kg, 아트월(1개)은 380잔 분량 5.7kg이 재활용됐다.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이사는 “재능기부 카페 13호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와 함께 커피찌꺼기가 유한한 자원으로 지역사회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풀무원, 17년째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풀무원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됐다. 풀무원은 지난 17일 한국농림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3년 제20차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식에서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올스타(All Star) 30개 기업에 17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풀무원은 올해 평가에서 442.71점(1000점 만점)을 얻어 17년 연속 상위 30개 기업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04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 30대 기업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누적 19회, 종합식품 기업 중 최다 선정 기록이다.

풀무원은 올스타 기업 평가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추천율’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고객 가치’ 부문에서 7.39점(10점 만점)을,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임을 입증하는 ‘사회 가치’에서 7.16점(10점 만점)을 획득했다. /신원선 기자

CU, 빨대없앤 컵얼음 확대 연간 플라스틱 200톤 절약

CU가 플라스틱 빨대를 없앤 ‘마시는 뚜껑 컵얼음’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CU는 지난해 수도권 점포를 중심으로 도입했던 마시는 뚜껑 컵얼음을 이달 전국 1만7000여 점포에 도입한다.

컵얼음은 한 해 2억개 가까이 판매되는 대표 상품이다. 기존에 제공되던 플라스틱 빨대의 무게가 약 1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신규 컵얼음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연간 20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서현 기자

농심, 청년농부 10만명 감자재배 돕는다

농정원과 청년수미 프로그램 MOU

농심이 올해도 청년농부 감자재배 돕기에 나서며 농가 상생에 앞장선다.

농심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소재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과 ‘2023년 청년수미 프로그램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청년수미는 농심이 식품업계 최초로 귀농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한 민관 협력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농심은 청년수미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명의 청년 농부를 선정하고,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 감자 농사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사전 계약으로 선급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며 씨감자 보관과 관리법은 물론 파종 시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영농 관리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교육 이수자 중 감자 재배 경력이 5년 이내인 농부를 중심으로 멘토링 대상자 10명을 선발했다.

농심은 청년농부가 수확한 감자를 ‘수미칩’과 ‘포테토칩’ 생산에 사용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농심은 청년농부가 재배한 감자 130톤을 구매해 감자칩을 생산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본점 등 4곳서 ‘저탄소 한우’ 판매

28일까지 30% 할인 프로모션

롯데백화점이 22일부터 본점, 잠실점, 강남점, 분당점에서 저탄소 한우 상시 판매에 들어간다. 지난 설 명절 처음으로 저탄소 한우 선물세트를 선보인 데 이는 결정이다.

선물 세트 판매 기간 동안 ‘저탄소 한우’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4개 점포를 시작으로, 상시 판매 점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한우는 일반 한우보다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 ‘친환경 한우’다. 전북대학교와 고창부안축협이 2년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품종과 사육 방식을 개선했다. 품종을 개량해 온실 가스가 적게 발생하는 암소를 선별하고, 사육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1~25개월로 최대 30%까지 줄여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원리다.



본점에서 저탄소 한우를 구매하는 고객 모습. /롯데백화점

저탄소 한우는 같은 무게 기준 세계 평균 대비 65%, 국내 평균 대비 45% 더 적은 양의 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 예방에 기여한다.

이번 저탄소 한우 상시 판매를 기념해 28일까지는 ‘저탄소 한우’ 전 품목을 30%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냉이·미나리 등 제철 식재료 가득... 식탁에 '봄이 왔나봄'

외식업계 '리프레시 푸드'

외식업계가 따뜻해진 봄 날씨에 입맛을 돋궈줄 '리프레시 푸드'를 선보인다. 제철·특산 식자재를 활용하거나 조리법에 변화를 줘 입맛을 한층 산뜻하게 깨워주는 것이다. 특히 제철 봄나물 메뉴가 주목받고 있다. 신선한 봄나물은 맛뿐만 아니라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

◆미나리·냉이로 맛·건강 다 잡아

먼저, 아워홈의 푸드앰파이어는 냉이, 부추, 참나물, 돌나물, 죽순, 미나리와 같은 봄나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출시했다. '봄나물 우삼겹 된장찌개' '봄나물 연두부 비빔밥' '봄 담은 우산슬 덮밥' '봄 미나리 불오징어 반상' 등 총 4종이다.

봄나물 우삼겹 된장찌개는 육수 베이스에 백합, 우삼겹을 함께 넣고 얼큰하게 끓인 뒤 냉이와 부추를 듬뿍 넣었으며, 봄나물 연두부 비빔밥은 밥 위에 참나물, 돌나물, 부추를 올리고 연두부, 궁채(상추대)절임, 적양파, 간장 소스를 곁들였다. 봄 미나리 불오징어 반상은 매콤한 오징어볶음과 싱그러운 미나리를 함께 즐기는 메뉴다.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도 '미나리제육덮밥'을 출시했다. 매콤한 제육볶음에 다량의 비타민을 함유한



죽장연 빼개장면

/오투기



미나리제육덮밥

/스쿨푸드

아워홈 '푸드앰파이어' 냉이 등 활용 '봄나물 우삼겹 된장찌개' 등 4종
스쿨푸드 '미나리제육덮밥' 출시

오투기 '죽장연 빼개장면' 선보여
국산 냉이 사용 향긋함 더해
크리스탈제이드 '탐라성찬' 콘셉트
제주 톳 사용 '바지락탕면' 등 3종

향긋한 미나리가 더해져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풍성한 양파와 당근 등 야채와 함께 반숙으로 올려진 계란 노른자를 더 뜨려 비벼 먹으면 입 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도 추가로 느낄 수 있다.

입맛을 끌어올리는 봄나물에 냉이가 빠질 수 없다. 봄 냉이를 활용한 라면 신메뉴로 집에서 봄나물 라면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오투기는 프리미엄 전동장 브랜드 죽장연과 협업하여 봄 시즌 한정 제품인 '죽장연 빼개장면'을 선보였다. 죽장연 빼개장면은 전통 빼개장과 봄 냉이가 만나 구수하고 향긋한 국물 맛이 특징이다. 신제품에는 청정지역 죽장연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재래식 빼개장이 들어가고, 국산 냉이를 사용해 향긋함을 더했다.

◆중식당에도 찾아온 봄

크리스탈 제이드는 제주도 식자재를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를 출시했다. '탐라성찬'을 콘셉트로, 제주 흑돼지와 제주 팥새우, 제주 모자반과 톳 등 봄의 맛을 깨워줄 청정 식자재를 통해 새 봄의 만찬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메뉴는 신선한 바지락에 제주산 팥새우, 모자반을 넣어 깊고 진한 맛을 살린 '제주 바지락 탕면', 제주산 톳을 전복장과 함께 볶

아내 고소함을 더한 '제주 톳 전복장 볶음밥', '중국 산둥 지방의' 무수려우'를 크리스탈 제이드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제주 흑돼지 무수포크' 등 3종이다.

봄동의 아삭한 식감을 살린 중식도 있다. 한화 더테이스터블의 중식 브랜드 3곳(도원스타일, 티원, 백리향스타일)은 봄동을 주재료로 '봄동 대합탕면' '봄동 우육탕면' '봄동 새우탕면' '사천식 봄동 찜빕' 총 4가지 메뉴를 선보였다.

◆달콤한 디저트로 봄 피크닉 기분 가득

메가MGC커피는 따뜻한 봄 햇살의 피크닉 타임을 가진다는 의미를 담아 '후루츠 주스프링'을 선보였다. 상큼한 블렌딩 주스 4종과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디저트 3종으

로 구성됐다. 블렌딩 주스는 과일의 싱그러움에 건강함을 담아냈으며, 디저트 메뉴는 블렌딩 주스와 곁들이기에 제격이다. '미트파이'는 풍미가 가득한 치즈와 바비큐 소스로 맛을 낸 소고기의 조화가 인상적이며, 크로크무시는 고소한 식빵 윗면에 햄과 치즈를 더한 든든함이 매력적이다.

던킨은 부드러운 연유를 활용해 기분 좋은 달콤함을 선사하는 시즌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 '딸기 연유 러블리 하트' '도넛 1종과' 딸기 연유 쿨라타 '연유폼 라떼' 등 음료 2종으로 구성됐다. 딸기 연유 러블리 하트는 딸기 필링과 연유 필링이 어우러져 부드러우면서도 상큼하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딸기 연유 쿨라타는 딸기와 연유에 우유, 얼음을 함께 갈아 넣어 부드러움을 한껏 끌어올렸으며, 연유폼 라떼는 달콤한 연유를 넣은 라떼에 부드러운 연유폼을 추가해 한층 달달한 풍미를 연출했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도넛 패키지와 컵홀더에 후지야의 인기 캐릭터인 페코, 포코 캐릭터 그려 넣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는 점 또한 돋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seoul.co.kr

'봄동 대합탕면' /한화 더테이블

명동상권 'K뷰티' 체험 구름인파... 외국인 매출 6배 ↑

영미권, 아시아 등 관광객 증가
봄 시즌 맞물리며 소비심리 폭발

'뷰티 1번지' 명동에도 봄이 찾아왔다. 영미권, 동남아, 일본인 관광객에 이어 중국인 관광객까지 명동을 찾으면서 상권이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지난 1~17일 명동 내 5개 매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배가량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 같은 기간 명동 상권 매장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73%로 여섯 배 가까이 뛰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일본, 영미권, 중국 순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기간 억눌렸던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가 봄 시즌, '올영세일' 등과 맞물리며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다. 또 최근 K-콘텐츠를 통해 K뷰티를 접하거나 '올리브영 글로벌몰' 등 역직구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매장을 방문해 K뷰티를 직접 체험하려 한 점도 한 몫했다.

한국 신진 브랜드들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 기간 외국인 인기 상품 톱 10 브랜드 중 9개가 중소·중견기업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미권

고객에게는 '한국의 미'와 특성을 살리거나, 순한 성분을 내세운 브랜드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빅모델'을 기용한 대기업 브랜드들이 외국인 고객에게 잘 팔렸지만 최근엔 K뷰티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판도가 바뀌는 추세"라며 "우수한 상품력과 적합한 채널만 있다면 중소기업 제품들도 얼마든지 외국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는 '조선미녀(Beauty of Joseon)'다. 국내 고객에게는 생소한 '조선미녀'는 현재 미국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다. 지난해 8월 외국인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명동 상권에 입점, 매월 매출이 30%가량 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기간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은 영미권 고객 인기 상품 1

위, 외국인 전체 인기 상품 6위를 차지했다. 토리든, 라운드랩 등 '클린뷰티' 콘셉트를 표방한 중소 브랜드 역시 이 기간 매출이 전년 대비 20배 이상 급증했다.

마스크팩 일색이던 외국인 고객의 K뷰티 장바구니 풍경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인의 피부에 관심을 갖게 된 동남아 고객은 주름 개선 기능 등을 내세운 '슬로우에이징' 상품을, 얼굴에 바르기 쉽지 않은 바디검용 선크림이 주를 이루는 영미권 지역 고객은 스킨케어와 유사한 제형의 'K-선크림'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중국인 고객은 마스크팩보다 색조화장품을, 일본인 고객은 치아미백제나 헤어 트리트먼트와 같은 다양한 상품군을 도전적으로 체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선 기자



렉라자

/유한양행

유한양행

'렉라자' 1차 치료제 변경 신청

유한양행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이하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 렉라자의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렉라자는 2021년 1월18일 식약처로부터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제품으로, 지난해 10월 EGFR 활성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 수행한 다국가 임상 3상 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무진행 생존기간(PFS) 개선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아시아 총회(ESMO 아시아)에서 상세한 임상 시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국내 적응증 확대를 위한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허가 승인시 1차 치료제로 더 많은 환자에게 고품질의 의약품 치료 기회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렉라자는 2018년 11월에 안센 바이오 테크사와 기술수출 및 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되어 안센의 EGFR-MET 타겟 이중 항체 치료제인 아미반타탐과의 병용요법으로 비소세포폐암의 1차 및 2차 요법 임상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분당 차병원 태아 뇌 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길 열어

김주평·정상섭 교수팀

도파민 세포 이식 통한 치료효과 확인

국내 연구팀이 태아 뇌 줄기세포로 파킨병 치료의 새 길을 열었다.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신경외과 김주평·정상섭 교수팀과 차 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문지숙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태아 중뇌 조직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운동 능력 향상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운동 장애(Movement Disorders)'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 교수팀은 70세 이하 파킨슨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세포수에 따라 세 그룹에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를 양측 대뇌 피각부에 이식했다. 평균 12개월

간 추적관찰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인 통합 파킨슨병 평가 척도(UPDRS)에서 ▲저용량 그룹(4x106 세포 투여) 11.6% ▲중용량 그룹(12x106 세포 투여) 26% ▲고용량 그룹(4x107 세포 투여) 40%의 운동능력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 출혈, 면역거부, 염증, 중앙형성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LGU+, 'U+MVNO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LG유플러스는 젠지 세대(Z세대) 대학생들이 알뜰폰의 인기 비결을 소개하는 'U+MVNO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U+MVNO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이 MZ세대 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활동을 통해 알뜰폰 관련 각종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롯데홈쇼핑, 시각장애 아동 교육격차 해소 나서

롯데홈쇼핑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서맹학교에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음성도서를 전달했다. 초등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진로 탐색, 직업 추천에 관한 도서를 이해하기 쉽고 완성도 높은 음성도서로 제작했다. 롯데홈쇼핑은 향후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동명부대, 튀르키예 피해복구 성금 4000弗 기탁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 27진이 지난 10일 주 레바논 튀르키예 대사관에 성금 4000달러를 전달했다. 사진은 동명부대장 강인수 대령과 부대원들이 알리 바리스 울루소이 주 레바논 튀르키예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들과 성금 전달을 위해 만나 기념촬영 모습. /뉴시스

여성경제인협회

‘W-스타트업 어워즈’ 참가자 모집

대상 2000만원…상위 50팀 사업화 자금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는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023년 W-스타트업 어워즈(제24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19일 여경협에 따르면 올해 W-스타트업 어워즈는 대회 참가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상(상금 2000만원) 등 수상자 상금을 두 배로 늘렸다.

또 우수 여성창업자 상위 50팀에 대해 초기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강화하고 참가자들의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향상과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사전교육도 신설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공영철

부음

▲김광희씨 별세, 최호진(동아제약 부회장)씨 빙부상=18일 서울성모병원(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1일 장지 양평 기독교추모공원. 02-2258-5946

조주완, 중남미 국가서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활동

〈LG전자 사장〉

LG전자 외교부 특사 자격 방문 브라질, 칠레 정부 관계자 접견

LG전자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작업에 힘을 더했다.

19일 LG전자에 따르면 조주완 사장은 최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특사 자격으로 중남미 국가를 방문했다.

13일에는 브라질 호드리구 파세쿠 상원 의장과 상하원 의원 15명 등을 만났고, 14일에는 칠레에서 클라우디아 산후에자 외교부 국제경제



LG전자 조주완 사장(왼쪽)과 브라질 호드리구 파세쿠(Rodrigo Pacheco) 상원의장

차관과 세바스찬 고메즈 외교부 양자 경제국장 등을 접견했다.

S23 울트라, 유럽 소비자평가 석권

삼성전자 7개국 연맹지 평가 1위 “2억 화소 등 최고의 퍼포먼스 발휘”

삼성전자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가 유럽 7개국 소비자연맹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3울트라는 ▲영국 ‘위치(Which)’ ▲덴마크 ‘탱크(Tank)’ ▲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Altroconsumo)’ ▲스페인 ‘오씨유(OCU)’ ▲포르투갈 ‘데코 프로테스트(Deco Proteste)’ ▲벨기에 ‘테크 아차트(Tech Achats)’ ▲네덜란드 ‘컨슈메텐본드(Consumentenbond)’ 등에서 최고의 폰으로 선정됐다.

특히 영국 위치는 지난 14일 공개한 ‘모바일 폰 리뷰(Mobile phone reviews)’에서 갤럭시 S23 울트라

에 총점 84점을 주며 1위에 올랐다. 갤럭시 S23+와 갤럭시 S23는 각각 82점, 81점으로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83점으로 2위, 애플 아이폰 14 프로는 80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덴마크 소비자 전문지 탱크도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랭킹에서 갤럭시 S23 울트라는 1위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갤럭시 S23 울트라에 총점 81점을 줬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의 소비자연맹지들은 갤럭시 S23 울트라는 애플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공동 1위로 선정했다.

해당 매체들은 2억 화소의 갤럭시 S23 울트라 카메라 성능을 호평했고,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카카오 ‘테크 캠퍼스’ ESG 지원사업 선정

고용부 청년친화형 사업 선정

카카오의 IT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카카오 테크 캠퍼스’가 2023년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형 ESG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카카오는 지난 17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행사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 테크 캠퍼스’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과 프로젝트에 기반한 실무 교육실습을 운영해 현업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주니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대학과의 협업으로 물리적인 제약없이 취·창업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받은 결과다. /최빛나 기자 vitna@

교원그룹

‘교원투어라이프’ 선배

교원그룹내 계열사인 교원라이프와 교원투어가 사업 시너지 극대화에 나섰다.

19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라이프와 교원투어는 첫 번째 공동기획 상품으로 크루즈여행과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교원투어라이프’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교원라이프로부터 라

이프케어 서비스를 보장받으면서 교원투어의 여행전문 브랜드 여행이지에서 제공하는 럭셔리 크루즈 여행을 비용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여행이지에서제공하는크루즈여행은 396만원 상당의 6월12일 출항 속초-북해도-아오모리 5박6일 패키지(2인)와 6월 17일 출항속초-오타루-하코다테-아오모리 6박7일 패키지(2인)로 구성됐다. /김승호 기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에쓰오일 5년 연속 ‘울스타 30’ 선정

정유산업부문 1위

에쓰오일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3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평가에서 5년 연속 All Star 30(30대 최우수 기업) 및 7년 연속 정유산업부문 1위에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소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매년 기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에쓰오일은 “이번 수상은 고객



서정규 에쓰오일 국내영업본부장(오른쪽)이 17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패와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들의 변함없는 신뢰의 결과이며,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않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한일시멘트 시멘트 부문 20년 연속 1위

고객가치, 사회가치 고평가

한일시멘트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멘트 산업부문에서 20년 연속 1위에 뽑혔다.

19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혁신가치, 주주가치, 직원가치 등 6대 핵심 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업계 종사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 평가를 지표화해 선정한다.

한일시멘트는 제품 및 서비스



한일시멘트 전근식 사장(오른쪽)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패와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의 질을 평가하는 ‘고객가치’, 환경친화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사회가치’ 등의 평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천공항공사 14년 연속 공기업 1위 ‘쾌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3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식에서 16년 연속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관리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또한 전 산업 분야 내 745개 기업 중 30대 ‘울스타’ 기업을 선정하는 부문에서 전체 13위를 기록하며 14년 연속 공기업 1위를 나타냈다. /허정윤 기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오른쪽)이 “2023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식에서 한수희 KMAC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우수상
에브리틱 팀 윤준성 김용운 양정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창업 지원도 취업 지원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ESG 캠페인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국 협력 대학이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차별 없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챗GPT’와 저작권 문제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챗봇 ‘ChatGPT’가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ChatGPT를 사용해 본 후 예상을 뛰어넘는 답변 수준에 인류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ChatGPT는 ‘GPT’라는 사전학습 언어 모델(Pretrained Language Model)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ChatGPT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학습한다. 그리고 이러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ChatGPT는 사람의 사고에 근접해 간다.

사람을 닮아가는 ChatGPT는 새롭게 다양하며 복잡한 여러 법률적 이슈를 발생시킨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저작권’에 관해서만 살펴보다도 ① ‘학습’의 단계(온라인상의 정보수집 등), ② ‘대화’의 단계(ChatGPT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창작물 등), ③ ‘활용’의 단계(ChatGPT에 의해 창작된 결과물의 활용, 저작권 귀속 등) 등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러 쟁점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ChatGPT 현황과 저작권 이슈’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ChatGPT와 관련해 ▲ChatGPT 생성물 저작물성 ▲학습자료 이용의 저작권 문제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오픈소스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ChatGPT와 관련해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채팅 로그)이 인간의 창작물과 유사한 경우(예컨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만들어 낸 시나 소설 등)에 이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으로는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특정 알고리즘’에 기초해 산출해 낸 결과물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저작물로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질문자 또는 개발자가 Ch

atGPT라는 도구를 사용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므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해 낸 결과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다음으로, ChatGPT에 의한 저작권 침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ChatGPT는 기존에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여러 정보나 수많은 이용자(user)가 입력하는 정보를 데이터마이닝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므로, ChatGPT가 생성해 낸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기존 저작물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ChatGPT가 생성하고 이용자가 이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ChatGPT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더욱 크게 또한 자주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ChatGPT의 알고리즘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추가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책이나 입법의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바른

반도체도 사람이 만든다



김 재 웅

(산업부)

요즘 반도체 회사 내부 분위기는 참으로 냉랭한듯 하다. 업황 악화로 비용 줄이기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그나마 힘든 일상을 위로해주던 성과급도 사실상 받기 어려워져서다.

시장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성장 가능성만 믿고 오랜 공부 끝에 반도체 전문가가 된 국내 최고 인재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해외나 학계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어두운 반도체 전망은 대학 입시에서도 드러났다. 한때 일부 의대와도 경쟁하던 반도체 전공학과가, 이제는 완전히 경쟁에

서 밀려버렸다. 특히나 최근 정계 태도도 반도체 전문가들을 실망케하기 충분했다. 업황이 악화하면서 국가적 위기까지 우려됐고, 결국 부담을 줄이는 ‘K칩스법’이 나왔음에도 모두가 외면했다.

반도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장비나 연구 개발은 물론, 전문가 육성과 보상 등 인적 자원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재가 부족한 때에는 비용이 적지 않게 필요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K칩스법이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물론,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를 통해 인재들을 지켜내고, 또 새로운 인재들을 찾으면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그나마 거대 양당이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는 모습이지만, 반도체 업계가 입은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 일부에게는 K칩스법이 어느새 재벌을 위한 특혜가 됐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이같은 논리로 K칩스법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려움에 처한 반도체 업체와 종사자들에 ‘뽕통’이라는 의견까지도 나온다.

세금이 줄어든다면 소외계층 지원이 줄어들 거라는 주장도 그리 외닿지가 않는다. 예산이 줄면 복지부터 줄어든 거라는 얘기,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를 부정하면서 낙수효과를 지켜야한다는 셈이다.

반도체 업종 고액 연봉자들이 내는 세금과 기부가 적지 않다. 공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옛말은 기업에는 몰라도 사람 개개인에는 꽤나 맞는 말인듯 하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지원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기왕이면 인터넷서널을 꿈꾸자.

/juk@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음 2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곧은살이 생겨서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다. 48년생 일단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60년생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72년생 회사에서 내 것 아닌 것도 야키는 작은 배려를, 84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으니 조금해하지 마라.



소

37년생 살아보니 무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행도 기회가 된다. 49년생 신규투자는 신중. 61년생 어려운 시국이지만 태양은 늘 누구에게나 비추게 마련. 73년생 욕심 내면 마음만 다친다. 85년생 얼룩이 발견되면 처리해야 되는데.



호랑이

38년생 나이는 공으로 먹는 게 아니니 나이 값을 해라. 50년생 사회생활은 공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62년생 누구가의 도움으로 오후 재물 들어온다. 74년생 바빠도 질서를, 86년생 우선재물을 추구해야 들어올 것 아니겠는가.



토끼

39년생 봄꽃이 지천이니 내 마음도 봄. 51년생 인생은 각본 있는 드라마. 63년생 뜻대로 되는 일이 펼쳐진다. 75년생 재물이 부족한 팔자는 남보다 가난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87년생 실력이 승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으나.



용

40년생 환경을 탓하며 고민하지말자. 52년생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라 했는데. 64년생 자신의 인생이라 해도 남의 시선은 생각해야. 76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도끼가 아니라 바로 자신. 88년생 부지런하면서 분수를 지키면 보통은 간다.



뱀

41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53년생 결혼한 자녀에게 부부일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65년생 위기를 기회로 필승전략을 세우자. 77년생 꿀을 얻으려면 먼저 벌통을 손질. 89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말

42년생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54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66년생 운이 상승하니 무슨 일든 시작. 78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쉽다. 90년생 공은 통글다는 말이 있으니 기회는 공평.



양

43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5년생 모두 좋을 수는 없으니 나누는 양보. 67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온다. 79년생 임시방편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 91년생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는가.



원숭이

44년생 공덕은 부메랑처럼 나를 찾아와 복된 운세를 불러들인다. 56년생 영업발전 소득발생. 68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음주과식하지 마라. 80년생 세상의 틀은 있지만 알 수가 없다. 92년생 불평 말고 퇴근하고 부모님을 살펴보고독.



닭

45년생 인생의 1순위는 항상 자신일수밖에. 57년생 자연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공평하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 69년생 오후 음주는 금물. 81년생 이직보다는 실력을 키우자. 93년생 굶은 길에서 선두를 추월하는 이치로 기회는 오기마련.



돼지

46년생 어제의 고난이 오늘 힘을 가져온다. 58년생 조상님의 제사를 정성으로 하면 나에게 축복이다. 70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띠의 도움으로 거래성사. 82년생 양보로 얹혀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94년생 저녁 7시 불길하니 다투지 마라.



돼지

47년생 병도 약도 다 내가 할 탓. 59년생 바쁜 친구에게 전화질말자. 71년생 동료들 시기하는 마음은 내복을 차버리는 행동인데. 83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95년생 세속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은 없으니 준비하고 기다리자.

김상회의四季

사주학 풀이 ⑧



정축일丁丑이다. 축인인丑寅引으로 소쥬를 본 범음은 망설임 없이 달려든다. 소는 범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간방良方의 합승인 축규과 인寅은 장간藏干천체가 암합暗合한다. 이때 양陽이 음陰을 지배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호랑이가 소를 보면 식록食祿이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순하게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민간에 주인을 위해 호랑이를 물리친 소애기가 전해 내려온다. 중국인의 행동 또는 중국정부의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쳐다보되 행동은 소처럼 느릿느릿하게 한다는 말이다.

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팔자에 축인丑寅을 다 갖추면 예리하면서도 우직한 성향을 품게 된다. 이때 축에 해당하는 육친六親의 고통도 함께 나타난다. 다음으로 축묘인丑卯이 있다. 거북이丑와 토끼卯는 우화의 단짝이다. 고대소설 토끼전과 이솝이야기의 토끼와 거북이가 대표적이다. 승부가 1승 1패다. 민첩하고 영리하기로는 토끼가 한수 위다.

이 얘기는 여러 이본異本이 존재하는데 대개 자라의 비극으로 결말난다. 은생우해恩生于害다. 토끼가 당할 때도 있다. 이때는 미처가 문제가 된다. 축미丑未가 충충하면 묘卯는 입묘入墓한다. 이어서 축진과丑辰破를 설명한다면 계묘는 어린물고기辰를 잡아먹는다. 축과 진이 파하면 상대적으로 진辰이 더 해를 입는다. 팔자에 축을 보면 질병으로 고생하기 쉽다. 술戌과 미未의 형제이 더해지면 수술을 피하기 어렵다. 암癌을 뜻하는 cancer는 히포크라테스가 암과 같은 악성종양을 카르키노스karkinos라고 기록한 것에서 유래한다. 암은 계묘를 뜻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5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학습할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각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퍼즐
사투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7		1					
4				5		7	8	
				4				6
2	6				8			
		8				6		
			2				4	5
5				1				
1	3		5					9
					2		5	

1						4	6	
						9	5	1
	4	9						
								5
4	7							
							3	8
	6	2	9					
		1	6					2

정답

1	5	7	2	6	8	4	8	9
6	8	2	4	9	5	7	8	1
8	9	4	7	1	8	6	2	5
5	7	8	9	4	2	8	1	6
2	8	9	1	5	6	8	7	4
4	1	6	8	8	7	5	9	2
9	6	1	8	7	4	2	5	8
8	4	8	5	2	9	1	6	7
7	2	5	6	8	1	9	4	8

2	7	6	8	4	9	1	5	8
5	4	1	8	7	6	2	9	8
9	8	8	5	2	1	7	6	4
8	6	2	9	1	8	5	7	4
1	9	7	4	5	8	9	2	6
4	5	8	2	6	7	8	1	9
8	8	4	1	9	2	6	7	5
7	1	5	6	8	4	9	8	2
6	2	9	7	8	5	4	8	1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성균관대, 대학원생 연구주관 불허는 연구자간 차별”

대학원생노조 성균관대학교분회
“학문후속세대에 명백한 차별”
한국연구재단 원칙에도 어긋나

성대측, 오늘 신청학생 간담회
“입장 설명하고, 의견 들을 것”

성균관대학교가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 사업은 주관기관을 승인했지만, 대학원생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의 주관기관은 불허하면서 연구자간 차별이 지적됐다. 학계에서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원이 반복적으로 도외시되는 만큼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촘촘한 학술 정책이 요구된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사업의 주관기관 승인을 거부하면서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B유형 사업은 인문사회 대학원 재학생·수료생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재단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고 있는



등교하는 대학생들 / 뉴시스

대학 밖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시간강사 연구 지원 사업’을 개편했으며, 석사학위 단위의 미취업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안정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균관대가 B유형을 주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오히려 연구자간 차별이 주목됐다. 17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분회는 ‘학문 후속세대를 외면하는 성균관대’라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원생들이 유일하게 지원 가능한 B유형만 주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문사회 학술사업의 주관을 굳이 거부하는 것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들에 대한 학교본부의 홀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균관대가 B유형 외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A유형 사업과 조교수 이상이 지원 가능한 타 사업들에 대한 주관기관 승인은 유지하면서 B유형만 거부하는 것은 연구자간 차별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대학 측은 연구재단을 주관기관으로 설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소속이 없는 독립 연구자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았고, 지원 마감일까지 한 달 내내 공식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 지원자들은 지원 후에 신청을 반려했으니 주관 기관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게 돼 어리둥절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산학협력단의 사업수행 거부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에 속한다. 대학원생 노조가 이 건에 대해 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황과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성균관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B유형을 신청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학교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당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학계에서 연구자간 차별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2021년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구자 권리선언문’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공대위는 “학술 연구의 정당한 가치와 연구자의 권리를 천명하고 대학과 학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자간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도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학술 관련 정책 수립 시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 요구됐다.

열린교육연구의 ‘대학원생 연구효능감의 영향요인 탐색(2021)’ 논문에서도 대학원생 대상의 정부 차원의 지원문제가 제기됐다. 논문에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성장중심 멘토링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지도교수가 실제로 대학원생의 연구주제 발굴이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방법 학습을 지원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학원생 대상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교통수요 최다 ‘강북강변선’ 추진을”

시정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서
303명 지지 ‘최대공감 제안’ 뽑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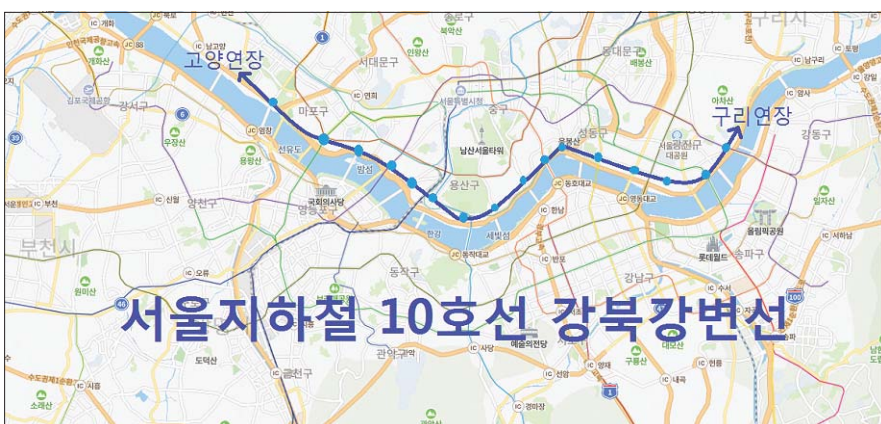
서울시민들이 도시철도 강북강변선 추진, 강변북로 진출입로 신설, 강서구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19일 서울시의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강북강변선(가칭 10호선)’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최모 씨 청원이 이달 3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시민 303명의 지지를 얻어 ‘이달의 최대공감 제안’으로 뽑혔다.

최모 씨는 “서울에서 교통수요와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한강을 기준으로 한 동서축”이라며 “동서축 남쪽에는 9호선과 올림픽대교가 있으나 동서축 북쪽에는 강변북로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 일부 구간에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으나 지상 전철이고 운행횟수도 제한적이며 한강 전체와 나란히 하는 9호선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동서축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북강변선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안에 시민들은 “지하철이 강남권에 많은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강변을 따라 이 노선이 생기면 환승역이 8개 이상으로 많아져 아주 편리해질 것이다” 등의 의견을 덧붙이며 호응했다.



최모 씨가 제안한 강북강변선(가칭 10호선) 노선.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시는 신규 도시철도를 건설하기에 앞서 10년마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노선 타당성을 검토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운다”면서 “강북강변선 추진 사항은 향후 5년마다 도래하는 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재검토 시기에 사업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광진구 자양2동과 3동의 경계에 강변북로 진출입로를 개설해달라는 김모 씨의 제안에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229명이 공감했다.

김씨는 “현재 영동대교와 잠실대교 사이 거리는 3km인데 강변북로 어디에서도 이 정도로 긴 구간 사이에 별도의 진출입로가 없는 곳이 없다”면서 “영동대교와 잠실대교 중간인 자양변영로 일대에 강변북로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면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길 및 뚝섬 한강공원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는 청원자가 제안한 강변북로~자양변영로~자양강변로 일대는 ▲산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문제 ▲주변 아파트 등 거주지역 환경문제(소음·분진·미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설치에 따른 자양강변로 주변 녹지(수목) 제거 ▲강변북로 정체에 따른 자양변영로 교통 혼잡 등의 사유로 진출입 램프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강서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 지난 2월23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52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반려동물이 있어 거의 매일 서울식물원에서 산책을 한다”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없어 공원을 걸으며 산책하거나 한쪽 잔디밭에 모여 노는데 갈 때마다 반려동물 관련 유의 플래카드가 추가되고 관리인들이 가운데서 지켜보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해외 관광객이 찾는 ‘골목길’ 만든다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서촌 등 5곳, 상권별 최대 15억 투입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골목길을 해외관광객이 찾아오는 글로벌(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으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촌 ▲이태원 ▲수유동 ▲신촌 ▲천호 자전거 거리 총 5곳이다.

앞으로 3년간 상권별로 최대 1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골목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글로벌 요소와 인프라를 추가해 국내외 방문객을 동시에 늘린다는 목표다.

시는 서촌 상권은 상점들의 연대가

부족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상인 간 협업을 통해 서촌에 새로운 콘텐츠와 인프라를 생성하고 임대인과 상인 간 상생을 유도,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태원 상권에는 3D 비디오 매핑 등을 활용해 지능형(스마트) 디지털 거리를 조성, 내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최근 건축가 기획 공간과 혁신적 개념의 시설이 생기면서 MZ세대의 방문이 늘고 있는 수유동에서는 상권 활력이 유지되도록 자생력과 경쟁력을 기르는 내용의 사업이 추진된다.

신촌에서는 음악, 공연 문화가 다시 싹틀 수 있도록 토양을 다지는 작업이 추진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7 | 해질 18:43

3월

20일(월)

음력 : 2월 29일

수도권 날씨

3 ~ 1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백령도 4/9

연천 -3/17

동두천 -1/17

가평 -1/17

파주 -1/15

서울 3/16

양평 -1/17

인천 4/12

수원 3/15

용인 3/15

평택 -1/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韓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온두라스·코스타리카에 파견
▲바이든, 성패트릭데이 파티서 아일랜드 총리와 단결 강조
/사진 뉴시스

▲“UBS, 크레디트스위스 인수 사전협의…정부에 인수비용 60억달러 요구”
▲중국, 무인 자율주행차량 허가, 3개월 도로 시운전



▲파키스탄 남서부서 정부군 소탕작전에 테러범 3명 피살
▲에콰도르 6.8 강진 사망자 13명 페루도 1명…매몰자 다수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라이프]
꽃단장 男心 잡아라
유통업계
남성 패션·뷰티 강화
L1



Life

[라이프]
외식업계
리프레시 푸드
제철 식재료 가득
L2



“최적의 생산환경 찾는 ‘데이터 농업’으로 농가와 상생을”



새벽을 여는 사람들

네토그린 임형준 대표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최적의 작물 생육환경을 구축하는 농업방식을 뜻한다. 이미 정부에서도 ‘신성장 4.0’ 전략으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으로 제시했을 만큼 주목받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산업을 개척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토그린’ 역시 스마트농업의 한 축을 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도전하고 있다.



머신러닝 기반 농업솔루션 스타트업 농가 재산성 확대 위해 ‘농업데이터’ 주목
환경·생육데이터 활용, 생산환경 제공

외부환경 영향 덜 받는 ‘컨테이너팜’
유럽종 상추 등 180여종 데이터 수집

모듈화 컨테이너팜 보급, 조합 발전 계획
동탄, 광명 등 수도권 공실 적용 목표도



◆데이터 기반 농업 솔루션…“유익미한 재산성 확보가 핵심”

임형준 네토그린 대표는 네토그린을 머신러닝 기반 농업 솔루션 스타트업이라고 소개했다. 기술을 활용해 농업 환경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및 생육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생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농업계에도 스마트팜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에 관심이 쏟아졌고 그 결과 많은 농가에 스마트팜 도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는 와중에도 국내 농가의 실질적인 재산성 확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임 대표는 “온실 시설의 자동화, 수경재배 도입 등으로 농가의 수확량과 관련 업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스마트팜 보급으로 농가 생산성은 향상됐다”면서도 “농가 수익성만 놓고 본다면은 농가 소득 중 실질적인 소득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온실시설 자동화, 수경재배 등 하드웨어 도입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네토그린은 스마트팜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농업데이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환경이라는 변수에서, 최상의 생육 데이터를 뽑기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나아가 이러한 공식이 도출해낸 결과로 알아낸 생산량 예측 데이터까지 이어지는 ‘최적의 레시피’를 도출해내겠다는 전략이다.

임 대표는 “현재 스마트팜의 대부분은 자동화 시설, IOT(사물인터넷) 보급 수준으로 작물을 돌보는데 편의성을 더하는 수준”이라며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비중도 저조해 재배 및 각종 의사결정은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경험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농가의 재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특정 환경 속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생산량까지 데이터로 예측이 된다면, 유통 단계에서는 가격 예측까지 가능해져, 농가에 유의미한 재산성 확보와 작물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물공장에 주목한 이유…“데이터 농업을 위한 선결 과제”

또한 도출해낸 최적의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으로 식물공장의 한 종류로 ‘컨테이너팜’에 주목했다. 임 대표는 “최적의 생육 레시피를 도출해 내더라도, 각기 다른 방식의 구조와 규격이 다른 상황에서 이마저도 소용이 없게 된다”며 “현재 보급화된 스마트팜에서는 센서 모듈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며, 센서가 제각각인 점을 고려할때 최적값을 구

네토그린 사업모델 발전 방향

기존에그리테크 기업

주요고객: 대형유통업체, 식자재업체 등

사업모델: 기업형 온실에서 대량재배 후 납품

경쟁상대: 농가

농부지원 대상여부: NO

네토그린

주요고객: 농가, 귀농인

사업모델: 농가에 보급형 식물공장을 판매

경쟁상대: 에그리테크 기업

농부지원 대상여부: YES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네토그린 R&D 센터에서 기른 버터헤드 미니코스 작물.

/네토그린

현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필수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어지는 기후변화 현상 역시 네토그린이 스마트농업에 주목한 또 다른 이유다. 임 대표는 “기후변화로 수십년간 쌓아온 관행농법 노하우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과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남해 일대에서는 작물 대부분을 열대작물로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먹거리 문제로 인한 식량 자급률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마트농업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형태를 가진 온실 형태 구조로 스마트농업 보급에 나서려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모듈화된 컨테이너를 통해 무게, 크기 등의 생육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농업데이터를 한 대 모아 빅데이터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180여종의 작물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이중 재산성 및 수익성을 고려해 버터헤드 유럽종 상추 및 허브류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후에 딸기 등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에는 한국금융지주에서 설립한 한국투자엑셀러레이터(KIAC)로부터 시드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유치한 자금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판매물 오픈과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수십건의 선주문 계약까지 진행하면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농가와의 상생 역시 중요한 지점 중 하나”

농가와의 상생 역시 네토그린이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에그리테크 기업 대부

분은 기업형 온실을 구축해 대량 재배를 통해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결국 중소형 농가와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내 농업 인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게 임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기업형 온실 방식이 수익적으로 검증된 모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결국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농업법인, 농업조합 등 농가와의 경쟁이 필연적이라서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모듈화한 컨테이너팜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이들을 전국적인 클러스터를 묶어 조합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수확시기, 예상 수확량 등을 예측하고 조절하고, 클러스터를 통한 협상을 통해 농가와 회사 모두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단순하게 유통 과정 매칭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도 클러스터로 구축된 조합을 통해 수익률 극대화는 물론 긍정적인 브랜딩 강화까지 이루려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컨테이너팜 모듈을 도심에 적용해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같은 산업용 부동산 문제 해결 가능성도 엿보고 있다.

임 대표는 “월세를 받는 방식 외에도 공간을 식물 공장으로도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며 기존 컨테이너팜에 적용된 모듈을 동탄, 광명, 일산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실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경기도 화성 동탄역 인근에 위치한 직접 운영하는 쇼케이스 마련을 위한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배드민턴 여자단식 간판 안세영, 전영
오픈 결승 진출 /사진 뉴시스
▲서울마라톤 4년만에 재개… 43개국
3만2000여 명 참가

▲잡은 이동에 지친 WBC…고개 드는
‘전임감독제’ 주장
▲‘부상’ 황희찬, 클린스만호 합류 불발
…대체 발탁 없다



▲자리가 바뀌네…에드먼, 좌우타석 바
뀐 선 이유는
▲미국, 베네수엘라 꺾고 4강행…터너,
8회 역전 그랜드슬램 /사진 뉴시스